metro®
메트로 2014년 4월 10일 목요일 제2953호 www.metroseoul.co.kr

Economy p/08



스포츠스타 마케팅 웃었다

Entertainment p/18



이민호 래핑 비행기 선보여

달러 환산 코스피는 2450p

ECONOMY p/07

러닝 겸용 등산화 출시 러시

LIFE p/14



김해서 가야문화축제 개막

FESTIVAL p/12




2014년 최고의 웰메이드 장르물 드라마!
Dday-1
살 아 있 었 네…
tvN 금토드라마
미스터리 감성 추적극
갑동이
내일 저녁 8시 40분 tvN 첫방송
tvN 금토드라마 갑동이 를 검색해보세요

Entertainment p/19



급진전 '밀회' 시청률은 후진

metro®
메트로 2014년 4월 10일 목요일 제2953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1



용병 대 토종 홈런경쟁 가열



첫 TV토론 펼치는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김황식, 이혜훈, 정몽준(왼쪽부터)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MBC에서 열리는 '서울시장예비후보 경선 1차 TV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첫 TV토론은 이날 오후 2시부터 90분간 진행됐다. 정 후보는 자신의 공약을 알리는 동시에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기간에 드러난 문제를 파고드는 데 주력했다. 김 후보의 경우 오랜 국정 경험을 내세웠고, 이 후보는 경제전문가 이미지를 강조했다. TV토론회는 경선일인 30일 전까지 4차례 진행된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박원순 현 시장에 대해서도 이와 동등한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입장을 방송사에 전달했다. /연합뉴스

30대 그룹 체력 많이 좋아졌다

자산 건전성 나타내는 지표 부채 비율 2004년 103%서 지난해 83%로 낮아져

지난 10년간 국내 30대 그룹의 자산 건전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인 부채비율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부채 비율은 금융권 등 외부 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나타내며, 기업의 건전성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로 쓰인다. 부채액은 기업이 보유한 자본액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100% 이하가 가장 이상적이다.

CEO스코어가 지난해 30대 그룹의 부채비율을 조사한 결과 100% 이하인 83.3%를 나타냈다. 이는 30대 그룹의 전체 자산이 갚아야 할 부채보다 훨씬 많다는 의미로, 10년 전인 2004년 103.1%와 비교해 19.8%포인트나 개선된 수치다.

실제 30대 그룹의 지난해 자본총액은 754조원으로, 부채총액 627조9000억원보다 많았다. 특히 10년 전 자본총액 243조원, 부채총액 250조5000억원과 비교해 부채는 151% 늘었지만 자본은 210%로 증가율이 1.4배 높았다.

이중 상위 10대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하위 20개 그룹이 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한 자구 노력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위 20대 그룹의 부채 비율 하락폭은 24.7%포인트로, 10대 그룹 17.3%포인트를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 1, 2위 삼성과 현대차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의 부채 비율 감소폭이 18.1%포인트로, 두 그룹 평균 -15.6%포인트보다 컸다. 이는 30대 그룹의 자산 건전성 개선이 삼성과 현대차로 인한 착시 효과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10년간 부채 비율이 개선된 그룹은 총 17곳, 반대로 악화된 곳은 13곳이었다. 부채비율 개선폭이 가장 큰 그룹은 재계 순위 28위의 부영으로, 2004년 1156%였던 부채 비율은 지난해 124.2%로 무려 1032%포인트 낮아졌다.

부영은 부동산 호황기였던 2000년대 초중반 임대주택 사업을 주도하며, 2400억원에 불과하던 순자산을 7조원으로 30배나 늘렸다. 같은 기간 부채는 2조8000억원에서 8조7000억원으로 3배가량 느는 데 그쳤다.

현대중공업그룹이 234.4%에서 112.6%로 부채 비율을 121.8%포인트 낮추며 2위, 코오롱그룹이 248%에서 155.3%로 92.7%포인트 개선하며 3위를 기록했다.

코오롱그룹은 화학 섬유의 전통 제조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화학소재 중심의 체질개선과 지주사로 전환하며 부채 비율을 낮췄다. 200%가 넘던 부채 비율이 2009년 지주사 전환 이후 매년 낮아지고 있다.

10개의 비금융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미래에셋그룹은 107.5%에서 51.1%, 현대백화점그룹은 87.7%에서 36.9%로 각각 56.4%포인트, 50.9%포인트 낮아지며 4, 5위에 올랐다.

이어 SK(137.2→86.8%, -50.4%포인트), 두산(175.7→128.7%, -47%포인트), 영풍(69.6→23.5%, -46%포인트), KT(163.3→121.4%, -41.9%포인트), 현대차(103.4→65.7%, -37.7%포인트)그룹이 부채비율 감소 '톱 10'을 차지했다.

반면 현대(298.2→540.5%, 242.3%포인트)와 한진(217.2→452.3%, 235.1%포인트) 등 물류업 중심 그룹은 부채비율이 크게 치솟았다.

대우건설그룹(153→278%), 동부그룹(163→269%)도 100%포인트 이상 높아졌고, 효성그룹(148→221%), 금호아시아나그룹(201→273%), 대우조선해양그룹(204→255%) 등 중후장대형 업종의 그룹들도 50%포인트 이상 악화됐다.

부채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23.5%(2013년 기준)의 영풍그룹으로 순자산 8조원에 부채는 1조9000억원에 불과했다. 2, 3위는 현대백화점(36.9%)과 삼성그룹(43%)으로 50% 이하의 높은 건전성을 보였다. /김태균기자 ksgit@metroseoul.co.kr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울릉도 비행기 타고 간다

2020년부터 소형항공기 운항

2020년까지 울릉도와 흑산도에 50인승 소형 항공기가 운항하는 소규모 공항이 건설된다. 제주도를 제외한 섬에 공항이 생기는 것은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울릉·흑산 공항 건설 기본계획 용역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각각 4932억원과 1433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며, 완공은 2020년과 2019년 예정이다.

울릉도와 흑산도는 연간 약 40만 명과 20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다. 울릉도는 독도와, 흑산도는 홍도와 연계한 관광이 활발하다.

현재 수도권에서 울릉도나 흑산도까지 가려면 7시간 넘게 걸리지만 이들 섬에 공항이 생기면 전국 공항에서 1시간 안에 갈 수 있다.

접근성이 좋아지면 관광 수요가 늘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들 공항이 동해와 서해의 요충지에 있어 해양 영토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용역 과정에서 공항 개발 예정지 기초 자료를 조사하고 항공 수요 예측, 공항 시설 건설·운영계획 수립, 타당성 분석 등을 할 예정이다.

용역을 거쳐 내년 4월까지 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한다. /박선옥기자 pso9820@



이게 남극 얼음 이주영(왼쪽) 해양수산부 장관이 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극지연구소를 방문해 남극 얼음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만만치 않을 무공천 후유증



기자 수첩

조 현 정 <정치사회부 기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완강하게 주장해 오던 새정치민주연합이 '무공천 재검토'로 선회하면서 정치권이 한바탕 출렁이고 있다. 지난 8일 '무공천' 입장에 대한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듣겠다며 사실상 일보 후퇴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회동 제안 거부로 여권의 '무시' 입장을 확인한 데다 '무공천 잠패론' 등 들끓는 당내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안철수 대표의 새정치에 대한 소신은 일단 보류된 채 돌파구를 마련한 셈이지만, 정치적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당내에서는 무공천을 강행할 경우 지방선거에 이은 총선·대선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현실론이 고개를 들었다. 무공천 원칙에 동의한 민주당과 연합까지 한 안 대표는 당내 이런 분위기에 대한 배신감과 함께 이를 막아야 하는 부담감도 컸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약속 뒤집기에 따른 후폭풍 우려를 짊어지게 됐다.

'무공천'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될 경우 안 대표는 당내 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번복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민심을 거스른 책임론에 휘말릴 것이다.

당은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기초선거 폐지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10일 재결정하기로 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결과가 어떻든 민심을 혼란스럽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

김정은 국방위 1위원장 재추대

북한이 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지난해에 이어 재추대했다.

김정은 체제 들어 처음 구성된 제13기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 격으로, 이날 오전 만수대의사당에서 회의를 열고 국방위원회, 내각 등 국가 기구를 정비하고 예산·결산 등의 안건도 처리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장성택 처형 이후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 위원을 대거 교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서 탈락한 리명수 전 인민보안부장과 백세봉 제2경제위원장, 장성택 등의 자리를 새로운 군부 실세인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군 총참모장 등이 메울 가능성이 크다.

또 최근 북한이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고 남한 정부에 대한 비난에 열중하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대외 메시지가 나올지도 관심이다. /김민준기자

뉴스&뉴스

한국 공적개발원조 회원국 중 16위

● 지난해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8개 회원국 중 16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ODA는 17억 4000만 달러(약 1조8240억원)로 전년 대비 4.8% 증가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6위를 유지했다.

정홍원 총리 중국·파키스탄 순방 출국

● 정홍원 국무총리가 중국과 파키스탄 순방을 위해 9일 오전 출국했다.

정 총리는 10일 중국의 하이난성에서 열리는 제13차 보아오 포럼 개막식에 참석해 우리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창조경제 등 경제정책과 '통일대박론'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고교수준 넘는 논술출제 정원 감축"

공교육 정상화·선행교육 규제 시행령

논술·구술·면접 등 각종 대학별 고사에서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을 출제하면 해당 대학은 최대 입학 정원의 10%가 감축되고 3년간 재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9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법 위반에 따른 시정·변경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교원 징계와 행·재정 제재 기준을 시행령에 마련했다.

대학별 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해 시정·변경 명령을 받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해당 대학은 입학 정원의 10% 내에서 모집 정지가 되고 1년간 정부 재정 지원사업 참가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이어 두 차례 불이행하면 입학 정원의 10% 내에서 정원이 감축되고, 3년간 재정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된다.

관련 교원에 대해서는 착오나 경과실은 경징계를, 고의나 중과실은 중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의결 요구하도록 했다.

또 모든 중·고등학교가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교과 내용을 미리 수업하거나 반 배치고사 등을 통해 평가하지 못하게 했다.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고3에 대해서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편성하는 방안을 담은 '실행 매뉴얼'을 마련해 8월 말까지 일선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지금은 웃고 있지만 새누리당 남경필(왼쪽)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9일 오전 경기도 수원 경기도의회에서 만나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각자 열린 기자회견에서 남 후보는 교통 공약을 발표했고 김 후보는 경선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연합뉴스

저고도 레이더 10대 도입 추진

군 당국이 북한의 무인기를 탐지하기 위해 이스라엘제 전술 저고도 레이더인 RPS-42 약 10대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9일 "올해 북한 소형 무인기 대비 긴급 예산으로 200억원을 편성해 저고도 레이더 약 10대를 구매하고 기타 감시장비도 보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육군이 운용하는 저고도 레이더 TPS-830K로는 북한의 소형 무인기를 탐지할 수 없어 이스라엘 라다의 RPS-42를 구매해 청와대 등 국가 중요 시설과 서부전선의 주요 축선에 배치한다는 것이다.

다목적 반구 레이더의 일종인 RPS-42는 탐지 거리가 30㎞로, 능동위상배열레이더(AESA)의 안테나를 사용한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다른 전력 사업의 예산을 이월해 소형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저고도 레이더를 긴급 구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또 전방 경계 강화를 위해 열상감시장비(TOD)와 다기능관측경 등의 감시장비도 보강하기로 했다. 저고도 레이더와 연동되는 소형 무인기 타격 체계로는 독일제 레이저무기 등이 검토되고 있다. 독일 라인메탈사의 레이저무기는 1~2㎞ 거리에서 소형 무인기를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준기자 mjkim@

北 무인기 "군사적 기습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최근 북한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항공기가 잇따라 발견된 것과 관련해 "군사적으로 보면 하나의 기습"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오전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무인 정찰기가 청와대까지 온 것은 완전한 기습 아니냐'는 질의에 "북한은 우리가 갖고 있는 대공 레이더 시스템이 소형 무인기를 포착하지 못한다는 것을 매우 교묘하게 이용해서 침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형 무인기에 탑재할 수 있는 폭탄의 무게에 대해 "3~4㎏ 정도로 추산한다"며 "건물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효과는 아니다"고 밝혔다. /조현정기자 jhj@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

서울시 강서구가 관내 81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재활용품 수집 학교별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재활용률이 떨어지는 폐건전지·폐휴대전화·종이팩(컵) 등 총 3가지 품목이다.

대학생학습멘토링 운영

서울시 동대문구는 관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해 '대학생 학습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수업은 대학생 멘토들이 매주 1회 멘티들이 있는 학교로 찾아가 실시하며 6월까지 10회에 걸쳐 총 30시간 진행된다.

중고물품 판매·교환 장터

서울시 강북구는 오는 27일 북서울 꿈의 숲 점핑분수 주변 광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민들이 직접 중고 물품을 판매·교환할 수 있는 '꿈의 장터'를 개장한다고 9일 밝혔다. 판매는 사전 신청 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기능 강국 코리아 9일 오후 서울 용산공고에서 막을 올린 2014년 제49회 서울시 기능경기대회에서 용접 부문 참가자가 갈고닦은 실력을 뽐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2030년 도시경쟁력 세계 3위

경제비전 발표…1인 지역내총생산 5만달러로



서울시가 2030년까지 도시 경쟁력 세계 3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을 현재 2만5000달러에서 5만달러로 높이겠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서울을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으로 재편하겠다며 '2030 서울플랜'을 발표한 박원순(사진) 시장은 이날 서울 플랜과 연계한 경제 분야 실행 계획인 '경제비전 2030'을 공개했다.

차세대 서울 경제를 선도할 'IT 융복합산업'을 중심으로 나노기술(N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 산업을 함께 발전시키고, 이를 콘텐츠 산업, 패션·디자인, 관광 등과 연계해 '융복합 경제'를 추진해나간다는 것이 기본 골자다.

융복합 경제 발전을 통해 2030년까지 도심권은 '글로벌 도심 창조경제 중심지(종로·동대문)', 동북권은 '미래성장동력 연구·교육 중심지(창동상계·홍릉)', 서북권은 '창조·문화산업혁신기지(DMC·서울혁신파크)', 동남권은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삼성~잠실)', 서남권은 '지속가능 서울경제 성장거점(마곡·G밸리)' 등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20대 산업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문화·지식기반형 창조산업 발전을 위해 2016년까지 개포외국인학교 부지를 '모바일 융복합공간'으로 조성한다. 또 동대문 DDP를 중심으로 대학로·남산애니메이션센터 일대는 창조산업 핵심 거점인 D밸리로 육성된다.

25대 관광 거점과 150개 테마 코스를 개발해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영동권을 중심으로 현재 6만4000여㎡인 MICE시설 면적을 2020년까지 3배로 확대해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2016년까지 3년간 매년 1조1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2030년까지 총 19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은행유출 정보 보이스피싱 악용

싼 금리로 대출전환 미끼

시중은행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보이스피싱 국내 조직 총책 이모(43)씨 등 4명을 구속하고, 텔레마케터로 일한 서모(25)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경기도 일산동구에 있는 오피스텔 2채를 빌린 후 7000여 건의 개인정보를 모아 지난달 18일부터 2주간 불법 수집한 개인 금융정보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대출 상환예치금 명목으로 3700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수집한 불법 개인정보에는 모 외국계 국내 은행에서 유출된 고객 대출정보 1912건이 포함됐다.

해당 은행은 전산망에 저장됐던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대출 채무 기록이 담긴 고객 1만6000여 명의 정보가 지난해 4월 대출 담당 직원에 의해 외부로 무단 유출됐던 곳이다.

이씨는 은행이나 정부가 운영하는 서민지원센터를 사칭해 고금리 대출 상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금융기관에서 새어나간 개인정보를 악용한 범죄가 확인된 만큼 정확한 개인정보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민준기자

필리핀 유학생 피랍 한달만에 피살

필리핀에서 유학 중인 20대 한국인 여대생이 괴한들에게 납치된 후 한 달여 만에 피살된 채 발견됐다. 필리핀 수도인 마닐라 지역에서 우리 유학생이 납치돼 피살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피랍된 여대생의 시신을 남동생이 확인한 결과 육안으로는 신원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복장은 피랍자의 것으로 보여진다"며 "필리핀 경찰은 DNA 및 치과 진료기록 확인을 위한 협조를 우리 측에 요청해왔다"고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유학 중이던 이 여대생은 지난달 3일 친구를 만나기 위해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가 피랍됐다. 납치범들은 여대생 납치 직후인 지난달 5일까지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를 10여 차례 걸어왔다.

필리핀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이 납치범과 만나는 것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가 8일 저녁 그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마닐라에서 북쪽으로 차량으로 1시간~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납치범 은거지에서 납치 여대생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김민준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1400원에 수입한 립스틱이 2만원

수입 공산품 10개 품목 조사, 최대 15배 부풀려

관세청은 8일 10개 공산품의 수입 가격과 국내 판매 가격을 비교한 결과 최대 15배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조사한 공산품은 생수와 전기 면도기, 유모차, 진공청소기, 전기 다리미, 승용차 타이어, 가공 치즈, 립스틱, 등산화, 와인(칠레·프랑스·미국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석 달간의 수입통관 자료를 토대로 나왔다.

조사 결과 10개 품목의 국내 판매 가격은 수입 가격에 비해 2.7~9.2배 높았다.

특히 립스틱이나 등산화처럼 수입가격이 낮거나 유모차 등 국내 유통구조가 독점적인 품목일수록 수입 가격 대비 국내 판매 가격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1423원에 수입된 립스팁의 국내 평균 판매 가격은 2만1150원으로 14.9배에 달했다. 평균 3144원에 수입된 립스틱의 경우에도 3만5000원으로 11.1배에 국내에서 판매됐다.

등산화의 평균 수입 가격은 2만2560원이나 국내 판매 가격은 7.5배인 16만9000원에 형성됐다. 5만7055원에 수입된 등산화의 판매가는 23만9000원으로 4.2배를 기록했다.

와인의 경우 수입 가격보다 4.8배 수준에서 국내 판매가가 결정됐다. 원산지별로는 칠레산이 5.1배로 가장 비싸게 팔렸고 미국산 5.0배, 프랑스산 4.37배 등의 순이었다.

수입 유모차의 경우 3.6배 높은 값에 국내에서 판매됐다. 수입 유모차의 판매 가격은 수입 가격 13만1628원대의 제품이 56만9500원으로 4.3배에 형성됐고 47만2240원에 들어온 제품은 133만5000원으로 2.8배 비싼 값에 판매됐다.

유모차의 평균 수입 가격은 대당 2만7037원에서 67만9140원이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울산 앞바다 참돌고래떼 9일 오후 울산시 남구 장생포항 동북 방향 7.5마일 해상에서 참돌고래 떼가 노닐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울산시 남구는 지난 1일 고래바다여행선 출항을 시작해 처음으로 고래 떼 50여 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울산시 남구 제공

봄철 서울 교통사고 겨울 비해 10%↑

야외 활동이 많고 춘곤증이 몰려오는 봄철 서울 시내 교통사고가 겨울과 비교할 때 10%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시가 교통사고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봄철 교통사고 유형을 보면 2012년 1월과 2월 서울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각각 2990건, 369건이었으며 같은 해 3월 3356건으로 10%가량 늘었다. 이어 4월 3451건, 5월 3605건까지 증가했다가 여름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봄철 교통사고 유형으로 ▲나들이 관광버스 대형 사고 ▲졸음운전 사고 ▲어린이·어르신 사고 ▲이륜차·자전거 사고 ▲안개로 인한 사고 등이 많았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봄철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배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2008~2012년 봄철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모두 3219건이 발생해 160명이 사망했다.

/조현정기자 jhj@

CNK대표 공관직원 협박 드러나

오덕균씨 추가 배임 혐의

'CNK 다이아몬드 개발 사기'를 주도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오덕균(48) CNK 인터내셔널 대표가 주카메룬 한국대사관 소속 서기관을 협박한 정황이 드러났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등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카메룬에 주재하던 이모 서기관이 외교부 본부의 박모 아프리카과장에게 보낸 e메일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오 대표가 이 서기관에게 전화를 걸어 "CNK 사업에 훼방을 놓는다. 청와대에 진정을 넣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전 카메룬 대사도 "오 대표가 이 사무관이 사업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항의했다"며 "김은석 전 대사도 이 사무관을 질책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오 대표가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개발권을 보유한 CNK마이닝카메룬의 경영권을 중국 타이푸 전기그룹에 넘긴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조현정기자 jhj@



"남자도 화장하세요" 9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대·기아차 협력사 채용박람회를 찾은 고교생들이 면접시험 준비를 위한 메이크업을 받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치대 교수 2명 학위장사 의혹 수사

한 유명 치과대학에서 교수 2명이 제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학위장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수년간 대학원생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논문을 대신 써준 혐의로 수도권의 한 유명 사립대 치과대학 교수 A(51)씨 등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08년부터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 일부로부터 논문 대필 대가로 금품을 받고 학위 논문 심사까지 임의로 통과시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현재까지 이들이 학생 최소 10명 이상에게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뒷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금액이 많게는 수억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 등의 도움으로 사실상 '가짜 학위'를 얻은 졸업생 가운데 일부가 현재 현직 의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윤다혜기자 ydh@

연구비 횡령 육사 교수 수사

육군은 민간업체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받은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육군사관학교 교수 2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 교수는 방산업체인 S사로부터 받은 위탁과제 연구비를 개인 계좌에 보관하며 사적 용도로 쓴 혐의를, B 교수는 국방 관련 연구기관으로부터 받은 연구비를 해외여행 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각각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검찰부가 정확한 횡령 금액과 경위, 용처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준기자



안전공단·남양주시 업무협약

안전보건공단 백헌기 이사장은 8일 남양주시청 2층 회의실에서 이석우 남양주시장과 '안심도시 남양주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기술을 지원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추억의 인물' 시리즈 우표

서울지방우정청이 우편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사용일 당시의 국내 기본 통상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속 사용이 가능한 '영원우표'를 추억의 인물 시리즈우표에 적용, 발행한다. 이번 우표는 한용운·이육사·윤동주 등 3명의 민족시인을 담았다.



국제 매너 갖춘 지성인 강의

서울여자대학교 전혜정 총장은 8일 교내 학생누리관 소극장에서 '국제 매너를 갖춘 대학 지성인' 강의를 개최했다.

'유어 타임 이즈 나우!' 라는 주제로 특강에 나선 전 총장은 학생들에게 도전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평생 동안 50% 할인 받고 산다

able 펀드마켓

당신의 **온라인 펀드생활**이 시작되는 곳!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평생 50% 할인**받고,
펀드전문가의 **투자컨설팅 서비스**까지!

(단, 온라인전용펀드 및 온라인클래스펀드 제외)

2014년 말일까지 현대증권 홈페이지 내 able펀드마켓, HTS, MTS로 펀드를 신규가입하거나 able펀드마켓을 통해 펀드 이동을 신청하는 고객에게 분기 단위로 할인금액 계산 후 해당펀드 매수계좌로 캐쉬백 입금해드립니다

이벤트에 참여하고 평생 할인도 받고!

기간: 2014년 3월 10일부터 6월말까지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현대증권 홈페이지 http://www.hdable.c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나와라 뚝딱! 순금골드바 이벤트

대상 : 펀드 신규 가입 및 펀드 이동 고객 (잔고 100만원 이상)
추첨방법 : 4월, 5월, 6월 말 기준 총 3회
경품 : 1등 | 금 3.75g/10돈(1명) | 2등 | 금 3.75g/5돈(5명)
3등 | 금 3.75g/1돈(20명)

선착순 사은품 증정 이벤트

대상 : 온라인(able펀드마켓, HTS, MTS)을 통해 10만원 (매수신청금액 기준) 이상 펀드 신규가입, 이동 시 (매월 500명)
사은품 : 황사마스크, 커피 기프티콘 등 매월 1종 선정

문화상품권 이벤트

26개운용사, 120여 개 펀드 중 원하시는 펀드 신규, 이동 가입 시 운용사 별 최대 5만원 상품권 증정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14-1137호(2014년 3월 5일~2015년 3월 2일)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 청취 후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결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펀드 가입전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세공과금 당사부담

able 현대증권



턱수염·콧수염 대왕들 한자리에

metro Russia

러시아의 '콧수염 대왕'들이 전부 모였다.

최근 모스크바에서 제2회 턱수염·콧수염 경연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는 표트르 대제가 콧수염 금지령을 내린 지 74년 만에 예카테리나 2세가 금지령 폐지를 선포한 러시아 '콧수염의 날'(4월 6일)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회는 턱수염과 콧수염 길이 재기, 모양, 인조 턱수염과 콧수염 부문 등 모두 6개 부문으로 나눠져 진행됐다. 턱수염 길이 재기 대회 우승자 빅토르 코체트코프는 "풍성한 턱수염은 내 트레이드마크"라며 "지난 63년간 턱수염을 한 번도 자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들이 머리카락을 가꾸듯 나는 매일같이 턱수염을 빗질하고 손질한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대회 참가자 알렉산드르 체르니쇼프는 "턱수염이 내 인생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턱수염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턱수염에 호기심을 가지는 여성들이 많다"며 "턱수염 덕분에 여자친구도 생겨 결혼까지 한다"며 활짝 웃었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는 외국 턱수염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처럼 엄청난 길이의 턱수염을 가진 참가자는 보이지 않았다. 대회 주최자 일리야 그레보프는 "우리 목표는 대회를 통해 사람들이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턱수염 길이는 중요하지 않다"며 "매일같이 하는 면도에서 벗어나 수염을 기르면 가끔은 해방감을 느낄 수 있고, 사람들이 자신의 미적 감각을 턱수염에 발휘하면 재미있을 것 같았다"고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율리야 두드키나 기자·정리=조선미기자

힐러리 "대통령 출마 깊이 생각"

IT업체 후원 강연서 인터넷 자유도 강조



"대통령 선거 출마에 대해 숙고 중이다."

힐러리 클린턴(사진) 전 미 국무장관이 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의 한 IT업체가 후원한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IT 전문매체 시넷 등 외신이 전했다.

시넷은 오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로 꼽히는 클린턴 전 장관의 대권 행보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힐러리 전 장관은 대권 도전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해왔다.

그러나 그는 이날 "현재 미국은 정치가 기능 장애를 일으킨 상황이다. 국무부장관 재직 시절부터 그런 상황을 봐왔다"며 미국의 현 정치 상황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6000명의 청중을 향해 "어떤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는지 자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힐러리 전 장관은 또한 "정작 어려운 질문은 '대통령이 되길 원하느냐, 승리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왜 출마를 하려 하는가, 또 어떤 차별화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동안은 (대선 출마에 대한) 결정을 내릴 계획은 없다. 지금 나는 친구들과 만나고, 산책을 하고, 애완견과 놀면서 내 인생을 즐기고 있다"며 자신의 발언이 당장 대권 도전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선을 그었다.

20여 분 동안 진행된 이날 강연에서 힐러리 전 장관은 IT와 경제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특히 인터넷 자유에 대해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국무부장관 시절) 인터넷 자유 수호를 사명으로 생각했다"며 "인터넷에 자유롭게 접속하는 것은 보편적인 권리로서 보호되고 존중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이란과 이집트 국민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21세기의 공론의 장인 인터넷은 자유로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투표하는 인도네시아 여성 9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투표소에서 한 여성이 손가락에 잉크를 묻히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회·지방의회 총선거가 이날 오전 시작됐다. 이번 총선은 7월 9일 대통령 선거의 향배를 가늠해볼 수 있는 무대가 된다. 인도네시아 선거법은 총선 득표율 25% 이상 또는 의석 점유율 20% 이상인 정당만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전 대통령이 이끄는 전통 야당 투쟁민주당이 30%대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해 제1당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FP 연합뉴스

39억짜리 경매 그림 사라져 수사

홍콩 고급호텔 CCTV 찍혀

홍콩의 한 고급 호텔에서 치러진 경매에 출품된 39억원 상당의 그림이 사라졌다.

중국 미술품 경매사 바오리는 지난 7일 홍콩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경매에 출품된 중국 작가 추이루줘(70)의 수묵화 '눈 쌓인 산'(山色蒼茫釀雪天)이 경매장에서 사라진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그림은 당일 경매에서 2875만홍콩달러(약 38억8000만원)에 낙찰된 그림이라고 9일 홍콩 언론들은 전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호텔 폐쇄회로 (CC)TV를 통해 경매 직후 행사장을 청소하던 호텔 직원이 다른 쓰레기와 함께 이 그림을 버리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에 쓰레기 매립장을 수색했지만 그림을 찾지는 못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절도로 보고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조선미기자

아베, 자위권 제한허용 시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단자위권의 제한적 허용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한 방송에 출연, "국가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집단자위권 행사가 포함된다"며 "고유의 자위권은 그러나 헌법 9조에 의해 '최소한'에 그치도록 제한돼 있다"고 덧붙였다.

집단자위권은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대신 반격하는 권리를 말한다. 역대 일본 내각은 일본도 국제법에 따라 집단자위권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행사하는 것은 평화 헌법 9조에 어긋난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아베 내각은 헌법 해석을 바꿔서라도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집단자위권이 없으면 미·일 동맹 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다. /조선미기자

“10대 그룹은 男을 좋아해”… 女 21% 뿐

10대 재벌 그룹의 남자 선호 양상이 갈수록 커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10대 그룹 소속 93개 상장사의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직원 현황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직원은 62만5144명으로 전년(60만6152명) 대비 3.1% 늘었다.

성별로는 남자 직원이 49만4214명, 여자 직원이 13만930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3.5%, 1.9% 증가했다.

하지만 남자 직원 증가율에 비해 여직원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전체 직원에서 차지하는 여직원 비중은 20.9%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10대 그룹 중 여직원 비중은 롯데, 현대중공업, GS, 한화, 포스코 등 5개 그룹이 전년보다 높아진 반면 재계 1위인 삼성을 비롯해 현대차, SK, LG, 한진 등 5개 그룹은 낮아졌다.

그룹별로는 롯데그룹의 여직원 비중이 50.4%로 전년(49.4%) 대비 1.0%포인트 증가하며 가장 많은 상승폭을 보였으며, 현대중공업그룹도 여직원 비중이 5.4%에서 5.9%로 0.5%포인트 상승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달러로 환산한 코스피 2450p선

외국인 눈 종목별서 지수 중심으로 바뀌어

국내 증시의 흐름을 좌우하는 외국인의 시각으로 코스피를 바라보면 어떨까?

외국인 투자자의 시각으로 본 코스피지수는 이미 2450선까지 올랐다. 또 글로벌 투자자금에서 상장지수펀드(ETF)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면서 딱히 한국이란 시장을 보고 들어오기보다 ETF에서 정한 신흥국 투자 비율에 따라 투자자산이 배분되는 경향이 강했다. 신흥국 증시에서 한국의 차별화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코스피지수는 2450포인트 선으로 집계됐다.

코스피가 3년째 장기 박스권인 1950~2050선에 갇혀있지만 최근 원화 강세 현상으로 달러 환산 코스피지수의 수치는 원화 기준으로 산정할 때보다 더 높아진다.

이재훈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지수 상승으로 발생하는 시세 차익이 환차익보다 커야 정상적인 장세”라며 “그러나 최근 원화 강세 압력이 커지면서 외국인 환차익이 시세 차익을 넘어서는 비정상적인 구간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달러 환산으로도 코스피는 박스권을 탈피하지 못했다.

외국인 자금이 더 유입돼 원화 강세 현상이 짙어지면 코스피지수가 추가 상승하며 전 고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5년8개월 만에 최저까지 밀리며 간신히 1040원 선을 지켰다.

환율은 전 거래일(1052.2)보다 10.8원 내린 1041.4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환율이 1050원 선에 근접할 때마다 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작용하면서 추가 하락을 막았으나 이날 1050원 선이 뚫렸다.

다만 이 연구원은 “코스피가 달러 기준으로 박스권을 탈피하려면 과거 800~900원대까지 환율이 하락해야 하지만 이렇게까지 원화 강세를 보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외국인 눈으로 한국 증시를 보는 눈도 종목별에서 지수 중심으로 바뀌었다.

예전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시가총액 상위 주의 전망 등을 보고 종목 위주로 액티브펀드 자금 등이 들어왔다면, 지금은 ETF 등 패시브펀드 자금이 한꺼번에 신흥국에 들어와 한국에 일정 부분 배분됐다가 환매로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경향을 보인다.

신흥국에 투자하는 ETF인 ‘아이셰어 MSCI 이머징마켓 ETF’의 경우 국가별 투자 비중이 중국 18.8%, 한국 16.1%, 대만 12.1% 등의 순이다.

또 한국 증시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30종목에 대해 삼성전자 3.7%, 현대차 0.97%, 네이버 0.54%, 현대모비스 0.54%, 신한금융지주 0.53%, SK하이닉스 0.50%, 포스코 0.49%, KB금융지주 0.40% 등의 비중으로 투자금이 나뉜다.

김영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런 ETF 자금은 외국인 비차익 매매로 들어오며 투자와 환매가 쉽기 때문에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지만 그만큼 빨리 이탈하는 단기성 자금 성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환율 급락 1041원…5년8개월만에 최저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8월 중순 이후 5년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1040원대 초반까지 내려앉았다.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는 전날보다 10.8원 내린 1041.4원에 거래를 마쳤다. 반면 코스피는 5.92포인트(0.30%) 오른 1998.95로 장을 마감했다. /연합뉴스

자수성가형 부자 43%

금융자산 10억이상 보유 대상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부자들 중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10명 중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과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9일 하나은행 PB 고객 977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2014 한국 부자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수성가형 부자들은 전체의 43.6%를 차지했고, 상속형 부자들도 증여 및 상속받은 자산의 규모가 현재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속형 부자들 중 증여 및 상속받은 자산이 현재 자산의 20% 미만을 차지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29.4%, 20~40% 차지 비중이 34%, 40~60% 차지 비중이 19.1%로 나타났고, 80% 이상을 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 미만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자산을 모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본인의 성실성’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전체 부자들의 소득 구조를 보면 재산소득이 38%, 근로소득 31%, 사업소득 25% 등으로 구성돼 있었으며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재산소득 비중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백아란 기자

은행들 서울시 區금고 유치전 불붙어

주요 시중은행들이 올해 하반기 10조원 규모의 서울시 구금고 유치전을 준비하고 있다. 은행에게 구금고 관리 은행 선정은 금전적 이득뿐만 아니라 브랜드 홍보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다. 이에 따라 구금고 유치를 놓고 시중은행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부터 서울 시내 25개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쟁입찰을 통해 구금고를 정해야 한다. 그동안 서울시금고에 선정된 은행은 나머지 25개 구금고도 수의계약을 통해 자동적으로 가져갔다. 하지만 안전행정부가 부정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경쟁입찰이 이뤄진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개별 구청 금고지기로 선정되면 25개 구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업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며 “시중은행 간 구금고 쟁탈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서울시 자금을 관리할 금고 우선지정 대상 은행에 재선정됐다.

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서울시 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26조원을 관리할 차기 시금고 우선지정 대상자로 우리은행을 선정했다. 지난 1월부터 시수납·지급, 유가증권 출납·보관, 유휴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김민지기자 minji@

market index <9일>

코스피	1998.95	(+5.92)
코스닥	552.22	(−1.85)
금리(국고채 3년)	2.86	(−0.02)
환율(원·달러)	1041.40	(−10.80)

뉴스&뉴스



오늘은 나도 스파이더맨 9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정문에 마련된 스파이더맨 체험존에서 고객들이 완구를 살펴보고 있다. 체험존에는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등 영화 캐릭터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마련돼 있으며 마블 캐릭터 완구 팝업스토어와 스파이더맨 핸드 슈팅 게임도 준비돼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3월 취업자수 증가폭 주춤

●3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취업자는 2516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4만9000명 증가했다.

1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70만5000명, 2월 83만5000명에 달한 것을 감안하면 증가폭이 다소 둔화됐지만 기본적으로 60만 명대는 고용시장 회복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해 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은 38만6000명을 기록한 바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2월의 경우 1년전 기저효과 때문에 많이 늘었다”면서 “3월에는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취업자 수 증가폭도 다소 둔화했지만, 전반적인 회복세는 이어지는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김민지기자

연금복권520 제145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20년	5조	975153
		7조	457556
2등	1억원	1등의 전후 번호	
3등	1000만원	각조	936647
4등	100만원	각조	60474
5등	2만원	각조	404
6등	2000원	각조	21,23
7등	1000원	각조	3,7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조 민 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이것이 '스마트 지갑' SK플래닛 홍보모델이 '스마트월렛'을 소개하고 있다. SK플래닛은 모바일 지갑 '스마트월렛'이 이마트와 CU와의 제휴를 통해 생활 밀착형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SK플래닛 제공

스포츠 스타 마케팅 '함박웃음'

김연아·손연재·이상화 모델제품 효과 톡톡

최근 다양한 기업들이 스포츠 스타를 앞세운 마케팅으로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피겨 퀸' 김연아 효과를 톡톡히 봤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스포츠 스타인 김연아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에어컨은 일명 '김연아 에어컨'으로 불리며 주목받았다.

이에 지난달에는 실제로 김연아의 이름을 적용한 '김연아 스페셜 퀸'과 '김연아 스페셜 엣지' 등 '김연아 스페셜' 에어컨 2종을 선보였다.

지난 7일에는 삼성 스마트에어컨 마이크로 사이트와 삼성전자 가전 유튜브에 김연아가 직접 부른 '렛 잇 고(Let it go)' 영상을 통해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피겨 퀸 김연아의 영향력이 광고모델로 활약하는 에어컨 제품뿐 아니라 홈페이지에 직접 유입되는 네티즌들을 끌어 모으며 톡톡한 홍보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LG전자는 최근 '2014 리스본 월드컵 리듬체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손연재 효과를 누리고 있다. 2011년부터 공식 후원계약을 통해 손연재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온 LG전자는 잇따라 국제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손연재의 성장에 미소 짓는 모습이다. 지난해에는 손연재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며 '손연재 스페셜 G' 에어컨을 출시하기도 했다.

손연재 효과에 웃고 있는 기업에는 KB금융그룹도 있다. KB금융그룹은 '비인기 종목에서도 스타가 나올 수 있고, 스타가 나오면 비인기 종목도 인기 종목이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비인기 종목 스포츠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KB금융그룹은 "운동이 재미있다"는 손연재의 말에서 그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장기 계약에 나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기아자동차도 스포츠 스타 효과를 톡톡히 누린 기업이다. 지난 2월 열린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건 이상화는 당시 그녀가 등장한 기아차 광고마저도 화제가 됐다. 지난달 기아차는 '빙상 여제' 이상화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스포츠 스타 마케팅은 그들의 성적에 따라 기업도 일희일비한다"면서도 "스포츠 스타의 경우 긍정적인 이미지가 오래가기 때문에 기업들도 이들을 잇달아 앞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건설사 입찰담합 과징금에 '휘청'

올들어 네번째… "1년 번 돈 한번에 날린다"

건설사들이 입찰담합 적발 등에 따른 잇단 과징금 부과로 휘청이고 있다. 인천지하철 2호선을 시작으로 광주·전남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대구도시철도 3호선, 경인운하 등 올 들어서만 벌써 네 번이나 짬짜미 사실이 발각돼 최대 300억원대의 과징금이 매겨졌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된 10대 건설사의 과징금 규모는 2135억6400만원이다. 적발 사례가 없는 한화건설을 제외하고 업체별로 적게는 75억8400만원부터 많게는 353억9900만원에 이른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는 대우건설이다. 최근 적발된 경인운하 건으로만 164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결정됐고, 인천지하철 2호선 160억3200만원, 대구도시철도 3호선 29억2700만원이다.

이어 ▲현대건설 330억2300만원 ▲SK건설 316억9000만원 ▲대림산업 272억4000만원 ▲포스코건설 237억9100만원 ▲현대산업개발 202억2700만원 ▲삼성물산 198억9400만원 ▲GS건설 147억1600만원 ▲롯데건설 75억8400만원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중 포스코건설은 입찰담합 현장조사 기간 중 컴퓨터 하드를 교체하고 그 내용 일부를 삭제하는 등 조사방해 행위로 1억4500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됐다. 또 GS건설은 담합은 아니지만 공시 위반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2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현대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건설사들은 지난해 전년 대비 급감한 영업이익을 내거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1년 번 돈으로 과징금 한 번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과징금 악몽이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당장 부산 지하철 1호선 연장선 입찰담합 조사 발표가 예정된 상태다. 또 담합에 따른 발주 기관의 손해배상 청구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가 지하철 7호선 연장 구간 입찰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며 12개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2심)이 진행 중이며, 지난달 말에는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인천시와 대구시도 현재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형 교보증권 연구원은 "과징금은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업체의 당기순이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실적을 깎아 먹는 요인은 아니다"면서도 "일회성 비용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 부과가 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봄꽃으로 덮인 초대형 슈즈 9일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모델들이 수국, 덴파레 등 화려한 봄꽃으로 덮인 2m짜리 초대형 슈즈 모형과 신발을 선보이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이날부터 이틀간 본점 10층 문화홀에서 신진 구두 디자이너, 각계 예술인들과 함께 슈즈 콜라보레이션 작품 전시회를 열고 신발을 테마로 한 다양한 영상·음악 퍼포먼스, 사진 전시, 플라워 아트 등을 선보인다. /신세계백화점 제공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쏟아진다

전국 5천가구 분양

봄철 분양 성수기를 맞아 다음달까지 전국적으로 5000가구 이상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분양된다. 서울에 위치한 대형 브랜드 단지가 많은 게 특징이다.

9일 부동산 포털에 따르면 4월과 5월 분양을 계획 중인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전국 17개 사업장, 5049가구다. 재건축 2389가구, 재개발 2660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 분양 실적 1870가구와 비교해 2.7배에 이른다.

4월 재건축 아파트 첫 분양 테이프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서울 강동구 고덕시영을 재건축한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가 끊을 예정이다. 전용면적 59~192㎡, 전체 3658가구 규모로 이 중 1114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이어 대림산업이 강남구 논현동 경복아파트를 재건축해 지은 '아크로힐스 논현'을, 현대건설이 양천구 신정4구역을 재개발한 '목동 힐스테이트'와 강서구 공항동 긴등마을을 재건축한 '마곡 힐스테이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5월에는 삼성물산이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역전면3구역에서 전용면적 135~248㎡, 총 195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래미안용산을 공급한다. 165가구가 일반 분양되고, 오피스텔 597실도 계획돼 있다.

이외 대우건설은 서대문구 북아현뉴타운 1-2구역에 '북아현 푸르지오'를 분양하고, GS건설도 동작구 상도10구역을 재개발한 '상도 파크자이'를 선보인다.

이처럼 4월과 5월 정비사업 분양 물량이 크게 증가한 데는 분양 시장 회복세에 힘입어 건설사들이 일제히 공급에 나섰기 때문이다. /박선옥기자 pso9820@

검색시장 겨냥 마케팅 경쟁 점화

최근 설문 "20~30대 40%가 인터넷으로 정보 찾아"

직사각형 검색창을 잡아라. 기업들이 포털을 본격적인 마케팅 플랫폼으로 삼고 있다.

9일 한국갤럽의 '매체 인식' 설문 조사에 따르면 20~30대 응답자의 약 40%는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답했다. 신문과 텔레비전 등 전통 매체를 제치고 1위에 오른 것이다.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들의 포털 의존도가 유난히 높다는 점에서 검색 시장을 겨냥한 기업 마케팅도 늘고 있다.

기업과 포털의 직접적인 마케팅 제휴는 업계 화제다.

삼성전자는 네이버와 손잡고 '커뮤니케이션 박스'를 지난 1일부터 운영 중이다. 검색창에 '삼성전자'를 입력하면 검색 화면 상단에 삼성전자 관련 뉴스 콘텐츠 6개가 박스 형식으로 노출된다. 이 공간은 광고주인 삼성전자가 직접 콘텐츠를 제작·편집한다. 뉴스 이미지를 클릭하면 삼성전자 블로그 '삼성 투모로우'로 자동 연결된다.

네이버 측은 "사용자들이 검색창에 기업 이름만 쳐도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커뮤니케이션 박스를 기획했다"면서 "다양한 기업들에 협업 의사를 타진했고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LTE-A 캠페인을 진행하며 네이버 검색창에 '잘생겼다 LTE-A' 광고 카피를 입력하면 경품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실 관계자는 "스마트폰 발달로 인터넷 검색이 손쉬운 시대가 왔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포털사이트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점을 감안해 삼성전자 관련 최신 소식과 정확한 정보를 알리도록 커뮤니케이션 박스를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2월 배우 이정재와 전지현을 내세운 LTE-A 캠페인 '잘생겼다!'를 선보이면서 네이버 검색창에 '잘생겼다 LTE-A'를 치면 즉석에서 경품 당첨 여부를 알려주는 이벤트를 한 달 동안 진행했다.

다만 포털 제휴 마케팅이 업계 점유율 80%까지 기록한 네이버에 편중돼 양극화 현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다. 기업의 상도덕 문제도 논란거리다. 한 기업은 포털 검색 마케팅을 벌이던 중 실시간 검색어 도배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모 IT기업은 경쟁사에 불리한 검색어 마케팅을 벌이다 결국 공개 사과를 했다"면서 "검색어 마케팅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포털이 공공 서비스처럼 된 만큼 활용 정도와 방법에 대한 업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일산화탄소로 만든 폴리케톤 소재 타이어 9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연 'WPM사업 성과전시 및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행사 관계자들이 일산화탄소로 만든 폴리케톤 소재의 타이어와 자동차 부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바일 영상 시청 30대가 가장 많아

모바일 TV의 유료방송 및 영상 콘텐츠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연령대는 '30대'로 조사됐다.

KT미디어허브는 최근 2주간 전국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영상 서비스 소비행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모바일 TV 시청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30대'가 33.3%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 32.5%, 40대 30.1%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10명 중 4명은 스마트폰으로 영상 시청을 했고, 이들 중 46.8%에 해당하는 절반가량이 유료 영상 서비스를 결제했다고 응답했다.

주로 즐기는 유료 콘텐츠 장르는 '한국 드라마'가 21%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고 영화 20.7%, 예능·버라이어티가 19.4%로 뒤를 이었다.

한편 KT미디어허브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스마트 기기를 통한 영상 시청 행태와 유·무료 영상 서비스 활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승희기자 ssh819@

"K9 시승하고 코스요리도 즐기세요"

고객 초청 주행성능 체험행사 연말까지

기아자동차는 9일부터 K9 전용 시승센터를 통해 특별한 고객 초청 시승 행사를 실시하는 K9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K9 Driving Experience)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K9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시승 프로그램은 K9 시승을 원하는 고객들이 특별한 장소와 분위기 속에서 주행 성능과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기아차는 K9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의 첫 공식 일정으로, 17일 서울 압구정 씨네 드 쉐프에서 K9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다이닝(K9 Driving Experience DINING) 고객 초청 시승 행사를 선보인다.

기아차는 추첨을 통해 총 5쌍(동반 1인)을 초대할 예정이며, 당첨된 고객에게는 ▲특급 셰프가 직접 개발한 9가지의 K9 코스 요리 ▲2박3일간 자유 시승할 수 있는 K9 VIP 티켓 ▲최고급 프라이빗 상영관에서의 최신 개봉 영화 관람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행사 참가를 희망하는 고객은 9일부터 14일까지 기아차 공식 홈페이지(http://www.kia.com) 이벤트 페이지에서 보유 차량과 거주 지역 등을 작성해 응모하면 된다.

또한 5월 부산국제모터쇼 기간에는 시승 체험과 함께 유명 셰프가 개발한 K9 코스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고객 초청 행사를 진행하고, 6월 기아차 주최의 한국여자오픈골프대회 기간에는 관람객들이 대회장 주변을 시승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지역 고객들을 위해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지에서 지역별 드라이빙 코스를 직접 시승 체험할 수 있는 초청 행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K9 시승 프로그램 관련 내용은 사전에 기아차 공식 홈페이지(http://www.kia.com)를 통해 수시로 확인 가능하며, 참가를 원하는 고객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 가능하다.

기아차 관계자는 "더 많은 고객들이 K9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를 통해 K9의 진정한 가치를 체험해보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아차는 1만여 명의 K9 멤버십 고객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새로운 디자인의 멤버십 브랜드 로고를 적용한 더 멤버십(The Membership) K9을 선보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월 숫자 9이 들어간 날에는 유명 레스토랑에서 고품격 다이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K9 다이닝 데이를 운영하고 있다.

/임의택기자 ferrari5@

작년 정보유출 사고 한국이 20% 차지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정보유출 사건을 통해 새어나간 5억5200만 건 중 20%가 우리나라와 연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만텍은 8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 인터넷 보안 위협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정보유출 규모는 총 5억5200만 건으로 전년(9300만 건)에 비해 무려 5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미국이 최대 유통업체 타깃의 1억1000만 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으로 전체 정보 유출의 25%가량을 차지했고 한국도 신용카드 3사 정보유출 사고인 1억400만 건을 포함해 유출 비중 20%를 훌쩍 넘겼다.

정보유출 사고가 일어난 원인으로는 해커에 의한 사고가 총 34%로 가장 많았고 내부 직원 등의 실수로 외부 공개(29%), USB나 노트북 등 단말기 분실에 의한 정보 유출(27%) 등이 뒤를 이었다.

해커들이 공격 방법과 타깃을 더욱 구체화하면서 e메일을 통한 표적 공격이 2012년에 비해 91% 늘었다. 또 2012년 처음 발견된 랜섬웨어 사기(데이터와 정보 시스템을 인질로 돈을 요구하는 방식)는 500%나 급증했다.

윤광택 시만텍코리아 이사는 "신용카드 번호와 의료 기록부터 비밀번호, 은행 계좌 상세 내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개인정보를 노리는 거대 규모의 공격이 급증하고 있다"며 "최근 관심이 모이고 있는 사물인터넷에 대한 보안 강화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국명기자 kmlee@

발상의 전환… 홍콩 '하늘 어장' 잘나가네

글로벌 이코노미

현지 업체 빌딩형 시스템 운영… "가족 방문객 많아 놀이동산 온 듯"



'오션에식스'의 로이드 모스칼릭 이사가 어장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BBC

비좁은 땅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홍콩 사람들. 최근 홍콩의 사업가들은 '아래'서 복닥거리느니 '위'로 올라가겠다며 '하늘 어장'을 차리기 시작했다.

영국 BBC방송은 홍콩의 대표적인 '수직 어장' 업체 '오션에식스'를 소개하며 최근 홍콩에서 빌딩형 어장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수직 어장은 도심의 고층 빌딩에서 채소를 재배하는 수직 농장과 그 형태가 유사하다.

오션에식스는 어린 물고기를 구입해 10~13개월 정도 키운 뒤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면 시장에서 판매한다. 매주 농어 등을 2t가량 도매시장에 내놓는데 판매 가격은 1kg에 776홍콩달러(약 10만5000원)다.

홍콩 사람들의 해산물 사랑은 세계에서 둘째 가라면 서럽다. 홍콩인의 1인당 연간 해산물 소비량은 70kg이 넘는다. 미국인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최근 수직 어장에서 기른 물고기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지난 5년간 도매가는 매년 10~15% 상승했다.

오션에식스의 로이드 모스칼릭 이사는 "수직형 어장과 우리가 키우는 물고기를 구경하기 위해 업계 사람은 물론 다른 분야의 사람들도 회사를 방문한다"면서 "토요일은 회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가족 단위 방문객 때문에 놀이동산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오션에식스의 어장은 물론 최첨단 물 관리 시스템도 인기다. 한국과 싱가포르 등은 물 관리 시스템을 구입해 수직 농장을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에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수직형 농장이 도심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중국 대륙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식품 안전 문제 때문에 점점 더 많은 홍콩 사람들이 친환경 농장에서 수경 재배한 유기농 먹거리를 찾는 실정이다.

'하늘 농장'을 운영하는 한 남성은 "10년 전 옥상에서 취미로 채소를 기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14층 건물에서 채소 농장을 3개나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객 서른 명이 내가 기른 유기농 채소를 사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하늘 농장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덕분에 양봉업자들도 싱글벙글이다.

꿀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마이클 렁은 건물 옥상에 파파야 나무를 심어 벌을 키우고 꿀을 딴다고 밝혔다.

그는 "파파야 나무가 홍콩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이 나무를 기르는 사람들이 꽤 된다"면서 "사람들이 잘 가꾼 농장을 돈을 주고 빌려 그곳에서 양봉을 할 때도 많다"고 했다. 이어 "벌들이 도시에서 사람들이 많이 키우는 바질 같은 식물을 먹고 꿀을 만들기도 한다"면서 "이 덕분에 독특한 향기가 더해진 꿀을 고가에 판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中 상어 지느러미 수입 90% 급감

시진핑 정부 호화연회 금지 탓

중국에 수출된 상어 지느러미가 90%나 급감했다. 시진핑 정부가 지난해 호화 연회를 금지, 고급 상어 지느러미 요리인 '샥스핀'이 관료들의 식탁에서 사라진 탓이다.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국제 환경보호단체인 세계자연기금(WWF) 홍콩본부를 인용, 홍콩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상어 지느러미가 2012년 120만kg에서 지난해 11만3973kg으로 약 90% 감소했다고 전했다.

홍콩의 상어지느러미 최대 수입국이었던 중국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베트남에 최대 수입국 자리를 내줬다.

홍콩은 세계 최대 상어지느러미 시장 중 하나다. 홍콩으로 들어온 상어지느러미는 대부분 중국 본토로 재수출돼 결혼식과 연회 음식 등으로 사용된다. 환경보호단체들에 따르면 중국이 전 세계 상어지느러미 수요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홍콩으로 들어오는 상어 지느러미 분량도 2012년 8285t에서 지난해 5412t으로 35% 감소했다고 WWF는 밝혔다. 이는 10년 만에 최저치다.

SCMP는 상어 지느러미의 수요가 줄어든 가장 큰 요인으로 중국 정부의 사치 풍조 척결 운동에 따른 호화 연회 금지 조치를 꼽았다. 이와 함께 환경단체들의 상어 지느러미 거래 금지 운동도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선미기자



맥도널드 앞 임금인상 시위 미국 코네티컷주 스탠퍼드의 맥도널드 매장 앞에서 시민 운동가들이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임금을 인상해 달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 연합뉴스

세계 스마트폰 시장 규모 10억대 넘을 듯

올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처음으로 10억 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하지만 성장폭은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는 올해 스마트폰이 세계시장에서 지난해보다 21.2% 늘어 12억10만 대 팔릴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시장 규모가 6억4610만 대로 전체의 53.8%를 차지했다. 북미(1억5320 만대), 서유럽(1억5090만 대), 중남미(1억2040만 대), 아프리카·중동(7140만 대), 중동부 유럽(5810만 대) 순이었다.

하지만 SA는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사실상 포화 상태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6년 뒤인 2020년의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16억5350만 대로 6년간 성장률이 37.8%에 불과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아시아·태평양 시장과 아프리카·중동 시장은 각각 82.6%와 159.2%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SA는 예측했다. /이국명기자

"심장 가진 전화" vs "기대 못 미친다"

갤S5 외신 반응 극과 극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5를 놓고 외신들 간에 논쟁이 치열하다. 최고의 갤럭시폰으로 평가하는 측이 있는가 하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의견도 팽팽하다.

8일(현지시간) 미국 USA투데이는 갤럭시S5에 대한 사용 후기 기사에서 "갤럭시S5는 심장(heart)을 가진 전화"라며 "심박센서와 방수 기능, 지문인식 기능은 매우 매력적(the Big Top attractions)"이라고 평가했다.

소비자 잡지 컨슈머리포트도 갤럭시S5가 "최고의 갤럭시 스마트폰"이라며 "인상적인 하드웨어와 기능이 독보적"이라고 전했다.

정보기술(IT) 전문지 씨넷 역시 "갤럭시S5는 밝고 아름다운 화면과 강력한 프로세서, 훌륭한 카메라 기능 등 모든 중요한 요소가 탁월하다"며 디자인·성능·기능 등 부문에서 고르게 10점 만점에 9점을 줬다.

반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한 외신도 있다.

경제지인 월스트리트저널은 "수영은 할 수 있지만 파도를 만들지는 못한다"면서 "갤럭시S3·S4 사용자들은 HTC의 원과 모토로라의 모토X를 살펴봐야 하고 더 큰 화면을 원하는 아이폰 사용자들은 가을에 나오는 애플 신제품을 기다리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워싱턴포스트도 "좋은 스마트폰이지만 현재의 스마트폰 계약을 해지하고 살 만한 가치는 없다"며 "지문인식 기능이 항상 동작하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이국명기자 kmlee@

네이트 종합커뮤니티 변신

정보공유 서비스 '판'으로 토론 활성화… 온라인 사랑방 역할 '온 힘'

SK커뮤니케이션즈가 서비스하는 포털 네이트가 종합 커뮤니티 사이트로 거듭난다.

네이버, 다음과 같이 통합 검색으로 승부하지 않고 타깃이 명확한 특정층을 상대로 긴밀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일종의 온라인 사랑방 역할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네이트의 가장 차별적 경쟁력이 게시판 정보 공유 서비스인 '판', 뉴스 댓글 등 이용자들 간의 개방된 소통에 있다고 보고 자유롭게 개인의 의견을 펼치는 공론화된 토론의 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9일 네이트에 따르면 최근 신설한 2종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필두로 꾸준히 유사한 콘텐츠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 8일 신설한 '네이트Q'(사진)는 매일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된 이슈에 대해 이용자들이 생각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질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네티즌의 투표와 댓글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용자들의 편리한 참여를 위해 모바일과 PC에서 로그인 없이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질문과 관련된 뉴스·판·동영상 등의 게시물도 확인할 수 있다.



네이트 Q는 매일 한 주제씩 운영되며 페이스북 네이트 계정(https://www.facebook.com/aboutnate)을 동시에 운영함으로써 외부 회원들도 편하고 부담 없이 주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증권 전문 포털 씽크풀과 제휴를 맺고 포털 네이트에 증권 서비스를 오픈했다.

네이트는 시간대별 증시 이슈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타임라인',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접하기 힘든 증권가의 소식을 담은 '증권가 속보' 등 한 박자 빠른 정보는 물론 일별 주요 이슈를 정리해주는 '오늘의 이슈', 종목별 증권사 리포트를 철저히 비교 분석한 '리포트 분석' 등의 심도 깊은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네이트의 주요 고객층인 젊은 세대를 겨냥한 구성이다. 자체 리포트, 종목별 핵심 정보, 매매 신호, 해당 종목의 살까 팔까 등의 코너를 통해 사용자들의 직관적 이해를 돕는 한편 관심 종목의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명성남 SK컴즈 홍보부장은 "국내 대표 커뮤니티와 연계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조만간 TV 드라마 전용 게시판도 운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SKT '데이터 리필' 100만명 돌파 SK텔레콤은 장기 고객 대상 '데이터 리필하기' 서비스의 월 이용 고객과 가족 고객 대상 무선 결합 상품 'T가족혜택 프로그램'의 누적 이용 고객이 각각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SK텔레콤 제공

소부·허유의 세이와 헤드폰



IT도 인문학이다

/박성훈기자 zen@

"OO가 △△랑 사귄다던데 얘기 들었어?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20대 여성)

"한잔해야지. 너네 집 근처 다 왔어. 지하철역 앞에서 치맥이나 먹자. 오늘 부장이랑 한판했는데 도저히 그냥은 못 들어가겠다."(30대 남성)

"숙제 다 했어? 학원은? 엄마가 오늘은 좀 늦으니까 저녁은 국 데워서 먹어. 누나는 친구 집에서 먹고 올 거야. 아, 맞다. 강아지 사료도 챙겨줘."(40대 여성)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다 보니 본의아니게 타인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된다. 워낙 크게 떠들어대니 소음공해도 짜증나지만 대화 자체가 '꼭 지금 여기서 당장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 얼굴이 일그러진다.

그런데 옆에 앉은 총각, 앞에 앉은 아가씨들의 표정은 왜 이리 밝은 것일까. 그러고 보니 이들은 하나같이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쓰고 있지 않은가.



소니 헤드폰 MDR-ZX750AP.

음악을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야구 중계나 드라마를 감상하는 듯하기도 하다. 옳거니! 소음공해에 노출되느니 듣고 싶은 사운드를 듣겠다는 것이렸다. 산불이 났을 때 맞불을 놓아 불을 끄는 것과 정말 닮았다.

용기가 없어서 또는 시비가 붙으면 시간을 낭비할까봐 "공공장소에서는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라고 할 자신은 없지만 내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정말 스마트한 삶의 방식이 아닌가.

국내 헤드폰·이어폰 시장이 매년 20~30% 성장하는 이유를 지하철에서 찾았다고 하면 너무 '오버'한 것일까.

스마트폰 사용자가 4000만 명을 돌파하면서 누구나 손쉽게 음악이나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데 가뜩이나 시끄러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귀에 무언가를 꽂지 않는다는 게 이상한 일이 됐다.

중국 고대를 대표하는 요임금은 허유라는 선비가 왕위를 물려받을 만한 위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에게 이 같은 뜻을 전했다.

그런데 허유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영수 강물에 귀를 씻었다.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들어 귀가 더러워졌다는 뜻이다. 이 소식을 접한 친구 소부는 "우리 송아지에게도 그 물은 먹이지 않겠다"며 한술 더 떴다.

여기서 나온 말이 세이(洗耳)다. 세속에 물들지 않겠다는 말인데 허유와 소부가 오늘날 살았다면 헤드폰을 급하게 집어 착용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적어도 송아지는 갈증을 금방 해결할 수 있었을 터.

육아·교육 고민? 앱에 물어봐

공공정보 애플리케이션이 직장맘들의 필수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육아나 교육 정보를 구하기 위해 발품·클릭품을 팔 필요 없이 스마트폰 터치만으로도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덕분이다. 특히 공공정보 앱은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에 의해 개방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메디라떼, 전국 병원 정보 OK

자녀가 갑자기 아픈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에이디벤처스의 '메디라떼'(사진) 앱을 터치하면 유용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국 5만8000개 병원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필요한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다. 관심 있는 병원을 클릭하면 의료진과 의료진의 경력, 학력, 전문 분야를 상세하게 보는 것도 가능하다.

지역별, 혜택별, 거리 순 등으로 맞춤형 정보를 찾아보는 것은 물론 앱을 통해 일대일 상담, 전화 예약을 할 수 있어 편리하다. 특히 실제 치료받은 고객만 리뷰를 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탑재해 허위·과장 리뷰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하우스인포, 학교 정보 꼼꼼 비교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정보도 앱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하우스인포' 앱은 교육학술정보원의 전국 초·중·고교 정보를 활용해 지역별로 위치한 학교 목록을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관심 있는 학교를 터치하면 학교 설립일, 설립 유형 등 기본적인 정보부터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교직원의 성 비율, 방과 후 학교 운영 현황 등 인터넷 검색으로는 찾기 어려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교과서 속 체험 학습도 가능

체험 학습에 대한 정보도 앱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교과서 속 미리 가보는 체험 학습 여행' 앱은 관광공사의 국문 관광 정보 서비스를 활용해 시기별로 아이에게 유용한 체험 장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원하는 코스를 클릭하면 관련 있는 교과서의 제목과 파트까지 상세하게 적혀있다.

◆아이 잃어버려도 걱정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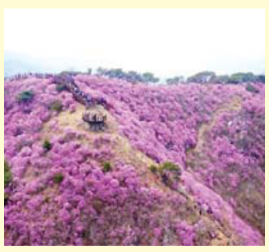
나들이철 발생하기 쉬운 미아 걱정도 앱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아이프티' 앱은 초록우산재단 실종 아동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이의 모바일 카드에 이름, 나이, 체형, 외형적인 특징 등을 등록해놓으면 혹시 아이를 잃어버렸을 경우 1km 이내 아이프티 사용자에게 긴급 알림을 보내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이국명기자 kmlee@

구석구석



◆울산고래축제
– 날짜: 4월 24~27일
– 장소: 울산 남구 태화강

'고래 안에 울산 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축제에서는 우선 왕관을 쓰고 망토를 두른 12m 크기의 고래대왕 뒤로 작은 고래들과 갈치·문어·고등어 등이 뒤따르는 고래대왕 행차를 만날 수 있다. 또 태화강에서 펼쳐지는 수상 멀티쇼와 러시아 태평양함대 해군예술단 공연 등 40여 개의 프로그램이 준비되며 고래생태체험관과 고래박물관에서는 고래의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고려산 진달래 축제
– 날짜: 4월 19일~5월 1일
– 장소: 인천 강화군 고려산

고려산은 봄이 되면 정상에서부터 펼쳐지는 진달래 군락으로 전국에서 가장 알아주는 명소다. 산 정상에서 능선을 따라 만발한 진달래를 감상할 수 있으며 26일과 27일에는 고인돌 문화축제도 동시에 열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더욱 풍성해진다. 또 낙조 때 바라보는 진달래도 색다른 매력으로 다가온다.



◆창원 진동 미더덕축제
– 날짜: 4월 11~13일
– 장소: 경남 창원시 광암항

'진동 미더덕'이라는 지리적 표시 수산물로 지정될 만큼 진동 미더덕은 맛과 향이 일품이다. 이런 미더덕을 축제에서는 덮밥·회·된장찌개·무침 등 다양한 요리를 통해 맛볼 수 있으며 갓 수확한 싱싱한 미더덕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게다가 풍어제·가요제·해상불꽃쇼 등의 볼거리도 다양하게 마련된다.



가야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축제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한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가 마련된다. 사진은 1500여 명이 참여한 수로왕 행차 모습. /김해시청 제공

"김수로왕+허황후의 사랑 보러 오세요"

김해서 내일부터 가야문화 축제 팡파르

찬란했던 가야 문화가 살아 돌아온다. '김수로왕과 허황후의 영원한 사랑의 길'이라는 주제 아래 '가야문화축제'가 시작되는 것. 오는 11일 개막제를 시작으로 15일까지 경남 김해시 대성동고분군과 수릉원 일원에서 펼쳐지는 화려하고 웅장한 축제를 생생히 탐험해보자.

◆2000년 역사가 숨 쉬는 김해

가야의 중심지였던 김해는 2000년 가야 역사가 숨 쉬는 곳이다. 진취적이면서 개방적인 도시국가였던 가야는 특히 철의 생산과 해상 교역을 바탕으로 유례없는 눈부신 문화를 발전시켜왔다. 또 6가야 중 김해에 금관가야를 세운 김수로왕은 인도의 공주였던 허황옥과 결혼함으로써 아시아 문화를 융합하는 역할을 자처했다.

이런 가야의 전통성을 살리기 위해 역사와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축제 스토리텔링을 맡았으며 김해시 역시 축제가 오늘을 살아가는 후손들에게 가야의 역사를 새롭게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게다가 지역 예술인들과 문화 관계자는 물론 중국·일본·인도 등 아시아 예술단체들이 축제에 참여해 아시아 문화 교차로였던 가야의 위상과 품격을 높여주고 있다.

◆행차부터 패션쇼까지 다양

축제에서는 먼저 봉황대 유적지를 출발해 대성동고분군까지 이어지는 수로왕 행차를 통해 당시의 철기 문화를 그대로 만날 수 있다. 또 구간구간마다 출연진들의 퍼포먼스로 거리는 함께 어울리는 공연의 장이 된다.

이와 함께 12일 오후 7시부터 대성동고분군 특설 무대에서는 가야복식 패션쇼가 열린다. 10명의 미스코리아와 20여 명의 패션모델이 가야 시대부터 현대의 퓨전 한복에 이르는 화려한 전통 의상을 선보인다.

게다가 김수로왕과 선조들의 혼을 기리는 고유제와 혼불 채화에서는 역사 전승의 순간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김수로왕의 창국 정신과 위업을 기리는 춘향대제와 가락국에 불교를 전래한 허황후의 오빠 장유화상의 공덕을 기리는 장유화상 추모제도 빠뜨릴 수 없는 볼거리를 제공한다.

◆색다른 프로그램 축제

축제는 또 방문객들을 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먼저 탁 트인 해반천에 인도의 전통배 도니를 띄워 온 가족이 승선 체험을 할 수 있는 김수로왕과 허황후 뱃길 체험 프로그램이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으며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가야 철기 및 토기 체험, 가야 복식 체험, 순장 체험, 가야 유물 발굴 체험 등의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또 자연 생태 체험학습장과 전통놀이 문화 체험, 가야 차문화 한마당이 이어져 자연과 전통, 품위가 어우러진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축제장소에는 가야 역사 테마 유등과 전통 문양 조명이 설치돼 낮과 밤 언제라도 축제를 즐길 수 있다.

아울러 민속 행사 프로그램으로 전국 민속 소싸움 대회와 가야 농악 경연대회, 민속 윷놀이대회 등이 열려 민족 고유의 신명 나는 전래놀이 마당을 즐길 수 있고 김해와 자매도시인 일본 무나카타시와 중국 우시시에서 참여한 공연단은 축제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매력을 선사한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 날짜: 4월 11~15일(금~화요일)
– 장소: 경남 김해시 대성동고분군 및 수릉원 일원
– 문의: 가야문화축제 제전위원회 055)330-3958

가야 숨결 깃든 9경 9길 '볼거리'



김해 3길 봉하마을 대통령의 길. /김해시청 제공

가야의 숨결이 깃든 김해에는 문화와 전통이 살아있는 9경과 9길이 있다.

◆놓칠 수 없는 김해 9경

김해의 볼거리 중 가장 잘 알려진 곳이자 9경의 첫 번째 명소는 봉화산 봉수대 아래 있는 마을이라 고해 '봉하마을'로 이름 붙여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가와 묘역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있으며 최근에는 봄꽃이 만발해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다.

또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은 건축·도자 전문 미술관으로 미술관 전경이 뒤쪽에 있는 논과 어우러져 전망이 좋으며 3경인 수로왕릉은 김수로왕의 무덤으로 가야의 중심지였던 김해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함께 4경 연지공원과 5경 화포천습지는 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발산하는 명소이며 대청계곡과 신어산 철쭉, 경전철 수로왕릉역에서 바라보는 풍경도 김해의 장관으로 꼽히는 곳이다.

◆김해와 가야의 흔적

이와 함께 김해는 특색 있는 9길을 조성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그중 1길인 해반천과 가야의 거리를 잇는 길은 국토해양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으로 선정될 만큼 절경을 자랑하고 있으며 2길인 허왕후 신행길은 길을 따라 가야의 찬란했던 문화의 혼을 담고 있다.

3길인 봉하마을 대통령의 길과 4길인 분성산길, 5길인 신어산 종주길은 저마다의 개성 있는 풍경을 뽐내고 있으며 가야사 누리길과 용지봉길, 낙동강 둑길도 여유를 즐기며 봄날을 만끽할 수 있는 산책로다. /황재용기자

화상에 의한 머리 흉터 "모발이식으로 재생 가능"

외과적인 수술에 의한 머리 큰 흉터 흔적, 재생에도 효과적

선천적인 원인으로 탈모가 발생하는 경우 외에 환경적인 이유와 같이 후천적인 원인으로 탈모가 진행되는 환자가 늘고 있다. 후천적인 원인은 사고나 화상으로 인한 흉터가 대부분인데 이런 흉터는 성인이 된 후의 사회생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가발을 이용해 상처를 덮어보려고 해도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고 지금까지는 모발이식 수술도 불가능했다.

하지만 순수 국내 의료진에 의해 처음 개발된 머리 흉터 부위 모발이식 수술이 이런 환자들 치료에 큰 가능성을 열었다. 연구에는 당시 서울대병원 피부과 권오상·은희철 교수와 오준규(사진) 모리치피부과 원장이 참여했는데 이 연구는 화상 환자에게 모발이식을 적용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이들은 먼저 이산화탄소 레이저로 두피 흉터에 지름 1~2㎜, 깊이 4~5㎜의 상처를 3~5㎜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만들었다. 이후 이산화탄소 레이저로 만든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새로 혈관과 신경이 생성되고 세포 성장을 유도하는 혈관내피 성장인자(VEGF) 등의 세포 성장인자들이 분비되는 4~8주 사이에 모발을 이식했다. 또 연구팀은 이산화탄소 레이저를 사용한 쪽의 두피가 그렇지 않은 쪽보다 혈관 생성과 세포 성장인자 분비가 활발한 것을 확인했다.

연구가 끝난 후 오 원장은 "두피 흉터에 이산화탄소 레이저를 쏴 두피 조직의 재생을 유도한 후 모발이식 수술을 시행한 결과 이식한 모발의 80% 이상이 살아남아 성장했다"고 전했다.

즉 이 연구를 통해 기존 20~40%에 불과했



던 흉터 및 화상 부위의 모발이식 생존율이 80% 정도로 개선될 수 있다는 획기적인 사실이 입증됐다.

흉터 부위 재생을 위한 모발이식 연구는 국내 학계는 물론 국제모발연구학회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런 연구진의 노력에 의해 실용화된 흉터이식 수술 기법은 피부과 최고 권위지인 '피부과학지(Archives of Dermatology)'에 게재된 바 있다.

◆원내 모발의학 연구소 직접 운영, 난치성 탈모 질환 치료에 기여

이 연구로 모발이식에 큰 공로를 세운 오 원장은 현재 원내에 모발 연구소를 직접 운영하며 두피, 모낭, 모발의 생리학적 구조, 모발 주기 등과 함께 난치성 탈모 질환을 연구하고 있다. 또 이런 연구에 이은 줄기세포 배양 기술을 통해 최신의 학술적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며 난치성 탈모 질환 치료의 임상 경험을 토대로 탈모 완치에 필요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그 결과 연구소에서는 직접 모발 줄기세포에서 분리한 모낭을 시험관에서 배양해 모낭의 모근초 주위로부터 세포들을 분리·배양하는 데 성공했다. 이어 인체 조직 중 조직 배양이 가능한 모발을 하나씩 분리해 배지에서 배양했고 이런 특성을 이용해 연구소는 여러 물질들을 여기에 첨가·배양함으로써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물질과 모발 성장 주기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난치성 탈모, 모발이식 수술 없이도 탈모 극복 가능해



화상으로 인한 흉터 부위 모발이식 수술 전(위)·후

이와 함께 오 원장은 난치성 탈모는 반드시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조기 치료가 우선돼야 하며 모발이식 수술은 대안이 없을 시 마지막 선택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개원 후 13년 동안 모발이식 3500케이스 이상의 수술 경험과 난치성 질환 치료 3300케이스 중 2500건을 모발이식 수술 없이 체계적인 치료만으로 완치시킨 많은 임상 경험들이 있기 때문이다.

◆선천성 언청이 수술 흉터 제거에 효과

모리치피부과는 오 원장의 진료 철학을 바탕으로 탈모의 근본적인 치료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국내에 몇 안 되는 난치성 탈모 질환 치료를 위한 병원으로 탈모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또 '언청이'라고 불리는 구순구개열 흉터로 고민하는 환자들에게도 모근을 이식해 흉터를 재생하는 치료도 시행하고 있다. /황재용기자

약효 소진 파킨슨환자 수행능력↓

학회 905명 대상 조사 결과

파킨슨병 환자가 치료를 받는 도중 약효가 일찍 소진되면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는 '세계 파킨슨병의 날'(4월 11일)을 앞두고 국내 파킨슨병 환자 905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삶의 질 지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국내 파킨슨병 환자의 '약효 소진 현상'에 따른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삶의 질을 비교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조사 결과 파킨슨병 환자가 치료 과정 중 약효 소진 현상을 겪으면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삶의 질 지수가 약효 소진 현상이 나타나기 전보다 각각 10%와 11%까지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효 소진 현상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약물 효과가 점점 떨어져 떨림, 경직, 통증 등의 파킨슨병 증상이 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통 약물치료 후 3~5년이 지나면 시작되며 약물 1회 복용으로 5~6시간이 유지되던 약효도 3~4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파킨슨병의 일상생활 수행 평가 척도(UPDRS)는 환자의 일상생활을 13개의 항목으로 구분해 평가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진단된다.



조사 결과 약효 소진 증상을 겪지 않은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점수는 9.1점이었으나 약효 소진 현상을 겪고 있는 환자의 평균은 14.1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효 소진 현상을 겪고 있는 환자들은 일상생활 수행 능력 13가지 항목 중 걷기(1.39점), 떨림(1.32점), 글씨 쓰기(1.24점)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꼈다.

또 마찬가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저하됨을 의미하는 삶의 질 평가척도(PDQ-8) 역시 약효 소진 현상을 겪고 있는 파킨슨병 환자(35점)가 그렇지 않은 환자(24.5점)보다 높았다.

파킨슨병은 주로 50세 이상에서 발병하는 3대 노인성 뇌 질환 중 하나로 손발의 떨림, 몸의 관절이나 근육의 경직, 느린 움직임 등이 주요 증상이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세계적 혈관외과 석학 학술대회 개최

국내에서 세계적인 혈관외과 석학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대한혈관외과학회는 오는 11일과 12일 이틀간 롯데호텔월드에서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학술대회에는 우선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복잡성 대동맥 질환의 최소 침습수술인 혈관 내 시술(Endovascular surgery)의 세계적인 대가인 휴터 미국 캘리포니아대 교수, 히올롱 프랑스 릴대 교수, 스티븐 쳉 홍콩대 교수 등이 참여해 최신 지견을 공유한다.

또 ▲복부 대동맥류 질환 ▲경동맥 질환 ▲말초동맥 질환 ▲정맥류 ▲투석 혈관 동정맥류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주제 발표도 마련된다.

11일에는 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학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소병준(대한혈관외과학회 이사장) 교수 등의 강연과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진행된다.

정구용(이대목동병원 진료부원장) 대한혈관외과학회 홍보섭외위원장은 "3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기점으로 학회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혈관 질환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요실금 적정관리지침 발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5회 국제요실금포럼'에서 '요실금 적정관리 지침서'가 발표됐다.

지침서에는 요실금의 진단과 평가, 치료 등 요실금 환자를 위해 고안된 단계별 시스템을 소개하고 있다.

진단과 치료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원칙으로 ▲요실금 전문 간호사에게 초기 요실금 관리에 대한 책임 부여 ▲협력을 위한 사례관리자 활용 ▲요실금 관리 과정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계 ▲간호사 및 보건·사회복지 전문가들을 위한 공인된 교육·훈련 과정 개발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포럼에서는 네덜란드 에라스무스대학에서 진행된 '지침서 적용에 따른 보건·경제적 효과 측정 연구'도 공개됐다. 연구 결과 지침서의 원칙을 4가지 만성 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의 네덜란드 노인에게 적용할 경우 3년간 1400만 유로(한화 202억1348만원)를, 사회·경제적으로는 1억600만 유로(약 1530억4492만원)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재용기자

냄새나는 CONCERT3

러쉬 제품 사고 콘서트 보러가자

내달 5일 공연 개최
성시경 등 6명 참여



영국 핸드메이드 코스메틱 브랜드 러쉬(LUSH)가 오는 5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러쉬 냄새나는 콘서트 3'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더 화려한 라인업의 여섯 아티스트가 참여한다. 감미로운 목소리의 발라드 왕자 '성시경', 지난해 MTV 유럽 어워드를 수상한 수려한 외모의 실력파 뮤지션 '바스티앙 베이커', 국민 힙합 밴드 '리쌍', 한국 인디록 신의 중심 '장기하와 얼굴들', 폭발적인 가창력의 걸그룹 '씨스타', 한국을 대표하는 혼성 록밴드 '자우림'이 러쉬 냄새나는 콘서트3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준다.

올해 콘서트의 테마는 '글라스 풀 오브 러쉬'다. 농부들의 정직한 땀과 정성이 모여 고급스러운 한 잔의 와인으로 탄생하는 것처럼, 생명력이 살아 숨 쉬는 러쉬 팜(Lush Farm)에서 진정한 위로와 빛나는 가치의 러쉬를 한 잔 가득 담아 가길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콘서트장 밖에 마련될 러쉬 팜에서는 고객의 오감을 만족시켜줄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신선하고 건강한 러쉬를 체험해볼 수 있다. 당일 오후 12시부터 시작된다.

러쉬는 전국 49개 매장 및 온라인 매장에서 일정 금액 이상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콘서트 티켓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6만원부터 7만5000원까지 제품 구매 시 구매 금액에 따라 티켓 및 좌석 등급별(스탠딩·R석·A석) 선택이 가능하다.

러쉬 냄새나는 콘서트3 관련 깜짝 이벤트 및 더욱 자세한 내용은 러쉬 홈페이지(www.lush.co.kr) 또는 공식 페이스북(facebook.com/lushkorea)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1644-2357

/정혜인기자 hijung0404@

러쉬 팜 야외 체험 프로그램

◆러쉬 파머스 마켓
- 신선한 러쉬로 장보러 오세요!
◆핸드메이드 키친
- 오늘은 내가, 러쉬 키친 셰프!
◆스킨 케어 카운슬링
- 자연으로부터 얻은 신선한 아름다움!
◆러쉬 캠페인
- 여러분의 관심과 용기로 세상을 바꿔요!
◆러쉬 팝업 스토어
- 건강하고 신선한 러쉬 베스트 50선!
◆러쉬 스파
-영국 전원의 정감 넘치는 정취 가득!



자외선 차단제 20~30분 간격 덧발라야



봄철 피부 관리법

봄철 자외선은 색소침착·주름·모공 등 여러 가지 피부 트러블을 가져다주는 주범이다. 4~5월의 일조 시간은 한여름보다 50시간가량 많을 뿐만 아니라 가을볕보다도 일사량이 1.5배 정도 많은 시기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봄에는 색소세포가 갑자기 많은 양의 자외선을 받아들이면서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가 파괴돼 피부가 쉽게 노화되고 민감해진다.

피부가 약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에는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서 더욱 치명적인 손상이 올 우려가 있고 자외선이 피부 속 수분을 손실시키므로 충분한 수분 케어가 필요하다. 야외 활동 많은 봄철 자외선으로 인해 피부톤이 칙칙해져 고민이라면 피부톤을 환하게 밝혀주고 피부 속에 생성된 멜라닌을 케어하는 화이트닝 제품을 사용하면 좋다.

봄철에는 무엇보다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는 것이 중요하다. 자외선 차단제는 무조건적으로 많은 양을 한꺼번에 바르는 것보다 20~30분 간격으로 소량 덧발라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러닝+등산…트레일러닝화 떴다

"충격 흡수·착화감 등 기능성 꼼꼼히 따져야"

등산화로 대표되는 아웃도어 신발 시장이 세분화되고 있다. 걷기 열풍과 함께 워킹화가 잇따라 출시되더니 최근에는 러닝과 등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트레일 러닝이 새로운 아웃도어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마니아들을 중심으로 트레일 러닝화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따라 아웃도어 브랜드들은 기능성을 강조한 트레일 러닝화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



백배순 노스케이프 본부장은 "트레일 러닝 시에는 충격 흡수를 위해 신발 바닥 면은 딱딱한지, 발을 꽉 잡아주는 소재와 설계로 착화감이 뛰어난지 등 기능성을 따져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스케이프의 멀티 트레일 러닝화는 바닥 면에 가해지는 족저압을 분석해 설계된 CTS(Control Torisional Stability) 기술이 적용된 미드솔을 사용한 신발이다. 미드솔에 적용된 이중 구조의 경도는 발끔치에서 발가락까지 내딛는 속도를 완화해주며 추진력은 최대화 시킨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지면이 고르지 않은 길에서 발로 전해지는 압력을 고르게 분산시켜주기 때문에 안정성과 착화감이 뛰어난 것도 특징이다. 투습력 또한 뛰어나 장시간 착용해도 쾌적함을 유지해주며 무게가 가벼워 어디에서든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업체 측은 덧붙였다.

아이더 카프라 트레일 워킹화는 신발 양 측면에 6개의 와이어를 장착해 안정적인 착용감을 제공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신발 전체에 에어매시 소재를 적용했고 방수와 발수가 뛰어난 고어텍스 소재를 섞어 기능성을 높였다. 스포티한 디자인과 화사한 색감이 트레일 러닝족의 이목을 끌고 있다.

노스페이스는 에어볼 시스템을 적용한 다이내믹 트레일 러닝화를 최근 선보였다. 에어볼 시스템은 러닝 시 체중의 6배에 달하는 충격을 흡수하는 발과 발목·무릎을 고려해 설계된 다양한 크기의 77개의 독립형 에어볼을 비대칭으로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블랙야크의 트레일 러닝화 워크핏은 해당사가 독자 개발한 루프그립(Loop Grip) 밑창을 적용해 접지력이 좋고 뒤틀림 방지 및 충격 흡수 기능이 우수하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신축성이 뛰어난 스트레치 소재와 무봉제 접착 공법을 사용한 것도 특징이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해외직구 장벽 낮춰 수입품 가격 잡는다

병행수입도 활성화…와인·유모차 등 10개 품목 가격 공개

정부가 병행수입과 해외 직접 구매 등 관련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춰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9일 오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소비재 수입 시장 구조가 사실상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면서 수입 가격과 판매 가격의 격차가 2~5배로 벌어지고 외국과 비교 시 판매 가격도 10~40% 높다고 보고 병행수입과 해외 직접구매 등 대안 수입 경로를 확대하는 방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통관인증제도에 대한 진입 장벽을 즉시 완화해 병행수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통관인증제는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차원에서 적법하게 통관 절차를 거친 물품에 관세청이 통관 정보를 담은 QR코드를 부착해 인증해주는 제도다. 현재 의류·신발이 중심이 된 236개 상표에 자동차 부품·소형 가전·화장품·자전거·캠핑용품 등을 추가해 350여 개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소·영세 업체의 참여 기반 확대 차원에서 독점 수입업자가 병행수입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 직접구매는 7월부터 수입신고를 간소화한다. 100달러 이하 해외 직접구매 품목에 한해 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목록통관제 대상을 현행 의류·신발 등 6개 품목에서 식·의약품을 제외한 전체 소비재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가 병행수입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해외 직접 구매 대상 품목을 확대해 소비재 수입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빅마켓의 병행수입의류 코너의 모습. /연합뉴스

이를 적용하면 통관 기간은 최대 3일에서 반나절로 줄게 된다. 관세사 수수료도 없어져 건당 4000원가량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별도 심사 없이 통관코드를 부여하는 특별통관업체 지정제를 폐지해 누구나 세관장에게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는 병행수입과 해외 직접구매 등 대안 수입 활성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통관 인증업체가 위조 상품을 취급하면 인증업체 지정을 즉시 취소하기로 했다. 위조 상품에 대해선 환불 등 손해배상 권고는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와 별도로 소비자 관심이 많은 생수와 가공 치즈·와인·유모차·전기 면도기·진공청소기·전기 다리미·승용차 타이어·립스틱·등산화 등 10개 품목의 수입 가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수입품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안적 수입 경로를 통한 소비재 수입액이 지난해 3조원에서 2017년 8조원으로 늘어나 전체 수입액 대비 비중이 5%에서 10%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유통업계에선 일단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통관인증제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지고, 그동안 병행수입이나 해외 직접구매 과정에서 가장 문제됐던 공동 사후관리(AS) 시스템을 구축하면 보상 수리 문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토마토 30% 싸게 사세요 홈플러스는 10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짭짤이 토마토' '송이 토마토' '노란 대추방울 토마토' 등 다양한 토마토를 시중가보다 30% 저렴하게 판매하는 '토마토 페스티벌'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제공

"이사업체 횡포 계약금 6배 배상"

공공기관이 이사 업체들의 횡포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는 이사 당일 추가 비용을 요구하며 이삿짐 운송을 거부하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는 등 이사화물 운송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이사 업체 및 이사 중개업체에 소비자의 손해를 고려해 "계약금의 6배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는 업체와 소비자가 처음 계약한 내용과 달리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현장에서 무단 철수한 이사 업체로 인해 소비자가 130만원을 추가 지출한 사례에 대해 이사 업체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계약금 10만원 환급 및 계약금의 6배에 해당하는 6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또 이사 중개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이사업자가 이사 당일 나타나지 않고 연락도 두절돼 결국 소비자가 다른 이사 업체를 통해 이사하면서 12만원을 추가 지출한 사례에 대해서도 이사 중개업체에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어 계약금 3만원의 환급 및 계약금의 6배에 달하는 18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조정 결정 사례처럼 이사 업체의 중개 역할만 하면서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고객을 확보한 후 정작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최근 빈발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영일기자

강강술래 홈피에 글 올리고 여행 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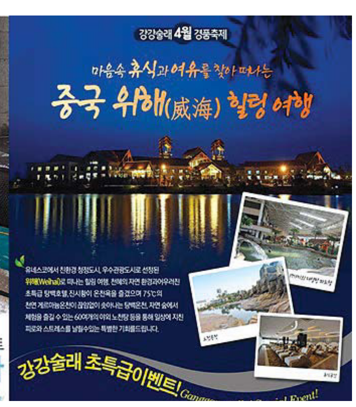
3색 힐링 이벤트 마련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오는 30일까지 국내외 여행을 지원하는 3색 힐링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강강술래 홈페이지 경품 이벤트에 신청글과 사연을 올리면 된다.

우선 강강술래는 코오롱투어와 함께 유네스코 지정 청정도시인 중국 웨이하이시의 초특급 탕백호텔 2박3일 숙박권을 추첨을 통해 총 5팀(1팀 2명)에게 증정한다.

리솜리조트와 함께 '리솜포레스트 해브나인 힐링스파' 무료이용권을 총 50명(1인 2매)에게 제공하는 이벤트를 벌인다. 또 길벗 출판사와 함께 주말을 이용한 밤도깨비 여행지로 좋은 홍콩에서 짧은 시간 동안 꼭 보고 즐겨야 하는 것만 담은 '홍콩 주말여행 코스북'을 준다.





한편 강강술래는 온라인 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 전 매장을 통해 30%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산 돼지 등심 부위를 통째로 넣은 '통등심돈가스'(720g×3팩스)는 3만1500원, 자연산 치즈를 사용한 '모짜렐라돈가스'(720g×3팩스)는 3만7800원에 판매한다. 환절기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대용량 세트(800㎖·5팩·15인분)는 3만8800원, 소용량 세트(350㎖·5팩·10인분) 2만25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6주년 맞은 '보리보리' 6가지 행사

유아동 종합몰 1위 '보리보리'(http://www.boribori.com)는 6주년을 맞아 오는 20일까지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한다.

'6살 생일 6가지의 꿈' 타이틀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전국의 보리 회원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온라인상의 6가지 이벤트로 구성했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휴대전화 등 카메라로 찍어 보리 사이트에 사진을 올리면 미술심리치료 전문 상담사가 실시간 아이 심리 상태를 댓글로 달아주는 '미술심리치료' 이벤트를 벌인다. 또 오는 13일까지 인기 애니메이션 영화 '리오2'를 보고 싶은 이유와 보리 6주년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이벤트 페이지에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150쌍에게 아이돌 그룹 소녀시대 '써니', 제국의 아이들 '임시완' 등이 무대 인사를 오는 특별한 VIP 시사회 초대권을 증정한다.



/김학철기자 kimc0604@



섹시 여가수? 털털 여장부!

'야시시'로 돌아온 NS윤지



"평소 화장도 안 하고 하이힐도 안 신죠."

'섹시 여가수' NS윤지(27)가 1년6개월 만에 새 미니앨범 '더 웨이2' 타이틀곡 '야시시'로 가요계에 돌아왔다. 시작부터 뜨거웠다. 신보 공개를 앞두고 공개한 수영복 티저 사진은 물론 뮤직비디오 등이 남심을 흔들었다. 최근 가요 무대에서도 몸매 라인이 그대로 드러나는 검은색 밀착 스키니를 소화했다. 그러나 NS윤지의 실제 성격은 섹시와는 거리가 멀었다.

◆ 1년6개월 공백

2012년 디지털싱글 '이프 유 러브 미'의 매력적인 음색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NS윤지의 공백은 생각보다 길었다. 1년에 두 차례 싱글을 발매하는 최근 가요계 트렌드와 다른 행보였다.

"1년 반 만에 돌아왔네요. 의도치 않게 공백기가 길어졌지만 쉬지 않고 준비해왔어요. 아쉽게 폐지됐지만 3개월 동안 다이빙 프로그램 '스플래시'를 준비했고 조그만 행사부터 대만, 홍콩 등 해외 공연도 진행하며 쉬지 않고 대중을 만났죠. 지난해 1월 미국에 다녀온 열흘 정도만 맘 편히 쉬었던 것 같아요. 이번 앨범도 1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덕분에 이번 앨범 타이틀곡 '야시시'는 물론 두 번째 트랙 '이프 아이 러브 유'도 음원 공개와 함께 주목받고 있다. NS윤지는 앨범에 대해 "타이틀곡 '야시시'는 신나는 노래기 때문에 무대에서 즐겁고 재미있게 할 수 있어서 좋다"며 "댄스브레이크 부분이 있는데 그날 무대 느낌에 따라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어 좋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어 "이단옆차기께서 직접 피처링해준 두 번째 트랙 '이프 아이 러브 유'는 여자의 심정이 강하게 담겨있다"며 "박재범씨가 피처링한 '이프 유 러브 미' 2탄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곡이기도 하다"고 소개했다.

평소 화장 안하고 하이힐 안신어
알고보면 '대식가'… 하루 5끼 먹어
노출부담 NO… 롤모델은 엄정화

◆ NS윤지 새로운 발견

한 시간여 동안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NS윤지는 김윤지로 돌아왔다. 털털한 웃음과 솔직한 모습 섹시 여가수라기보다는 여자 대장부의 느낌이 강했다.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노출에 대한 부담은 없어요. 어렸을때 부터 미국에서 자라서 그런지 제 모습을 보고 '이게 심한 건가?'라는 생각도 가끔 해요. 그런데 가장 큰 고민은 미국 친구들이 제 모습을 보고 적응을 못 하는 거죠.(웃음) 농구 선수로 활동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고, 스포츠와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제 모습을 기억하고 있죠. 저 또한 어색하지만 무대 위에서는 다른 매력을 보여줄 수 있어 즐거워요."

NS윤지의 반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하루 5끼를 먹을 정도로 남다른 식성을 가진 NS윤지는 컴백을 앞두고 첫 다이어트에 도전했다.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다이어트에 도전했어요. 3개월 동안 닭가슴살과 바나나, 견과류를 먹고 살을 빼면서 근력 운동을 했죠. 덕분에 반응은 좋았지만 지금은 심각한 요요 현상을 겪고 있죠. 뮤직비디오 촬영 후 닭강정과 돈가스, 치즈김밥에 빠져서 4kg 정도 늘어났어요. 데뷔 무대를 보신 어머니께서 관리하라는 연락을 할 정도였죠. 다이어트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웃음)

◆ 데뷔 5년, 10년 뒤에는 '제2의 엄정화'

이제 활동 5년차를 맞이한 NS윤지는 다양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자신의 이름을 내건 단독 콘서트부터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은 가수로서 자리 잡고 단독 콘서트를 진행하는 게 우선이지만 5년 뒤에는 다른 분야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도전을 좋아하는 성격 탓이기도 하죠. 그래서 연기 레슨도 시작했죠. 저 자신이 준비됐을 때 좋은 작품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롤모델에 대한 질문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화를 지목한 NS윤지의 향후 행보가 기대된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디자인/박은지


CJ E&M
세상은 우릴 기억할거야
Musical
BONNIE & CLYDE
보니앤클라이드
Ready for "Jang Hyun Seung"
Finally comes
보니앤클라이드의 숨겨진 캐스팅! 장현승! 그가 온다!
2014.4.15~6.29 BBC아트센터 | BBC홀
김봉환 서영주 김법래 엄기준 에녹 박성환 손준호 장현승 Key 박형식 주아 김아선 가희 오소연 외
Book by IVAN MENCHELL, Lyrics by DON BLACK, Music by FRANK WILDHORN
프로듀서 김병석,김선미 | 연출 왕용범 | 음악감독 이성준 | 안무 홍유선 | 무대디자인 Tobin Ost , 서숙진 | 조명디자인 Michael Gilliam, 민경수 | 음향디자인 권도경 | 분장디자인 김유선 | 의상디자인 김지연 | 영상디자인 Aaron Rhyne, 박 준 | 소품디자인 임희정
투자 하나투어 제작 CJ E&M (주)엠뮤지컬아트 협찬 LOUN.G 예매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하나 Free티켓 1566-6668 CJ E&M TICKET 1588-0688 YES24.COM 공연 1544-6399 BBC아트센터 02-2056-5761 문의 (주)엠뮤지컬아트 02-764-7857~9 CJ E&M TICKET 1588-0688
Bonnie and Clyde is presented through special arrangement with Music Theatre International (MTI). All authorized performance materials are also supplied by MTI. 421 West 54th Street, New York, NY 10019 USA, Phone: 212-541-4684, Fax: 212-397-4684 www.MTIShows.com
bonnieandclyde.co.kr

HOT PHOTO



수현 "'어벤져스' 촬영 잘하고 올게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 출연하는 수현이 첫 촬영을 위해 9일 영국 런던으로 출국했다.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포착된 그는 수수한 차림새에도 화려한 미모를 자랑해 시선을 집중시켰다. 극중 천재 과학자로 캐스팅된 수현은 첫 촬영에서 아이언맨(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과 만나는 장면을 촬영할 예정이다. "많은 응원과 사랑을 보내줘 감사하다. 첫 촬영인 만큼 신나고 재미있게 즐기고 돌아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탁진현기자 tak0427@

▶ '할리우드 신데렐라' 탄생의 순간이네요.

박신혜 이번엔 월드투어

내달부터 미국 필두 중국·일본 등 순회… "새 모습 보여줄 것"

배우 박신혜가 전 세계 팬들을 만나기 위해 월드투어에 나선다.

박신혜는 다음달 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2014 드라마피버 어워드' 참석 후 미국을 시작으로 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필리핀 등에서 '2014 박신혜 월드투어: 스토리 오브 엔젤'을 개최할 예정이다.

드라마 '상속자들'에 출연하며 이민호·김우빈 등과 함께 중국에서 큰 인기를 모은 박신혜는 상하이는 물론 베이징, 충칭, 선전, 창사 등 중국 5개 지역을 순회한다.

박신혜 소속사 솔트엔터테인먼트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의 뜨거운 사랑에 항상 감사한 마음"이라며 "더 많은 해외 팬들과의 만남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아시아투어를 개최한 박신혜 /솔트엔터테인먼트 제공

이어 "지난해 한국 여배우 최초로 아시아투어를 개최했던 박신혜가 이번 월드투어에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천국의 계단'으로 데뷔한 박신혜는 2009년 한류스타 장근석과 함께 '미남이시네요'에 출연하며 차세대 한류스타로 떠올랐다. 이후 '넌 내게 반했어' '이웃집 꽃미남' '상속자들' 등에 출연하며 새로운 한류 여신으로 자리매김했다. 또 지난 1일에는 음원 '팔베개'를 발표하는 등 만능 엔터테이너로 첫발을 내디뎠다.

한편 현재 영화 '상의원'을 촬영 중인 박신혜는 슬픔을 간직한 왕비 역할을 맡아 한석규·고수·유연석·마동석 등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대만엔 '이민호 버스' 한국엔 '이민호 비행기'

'한류스타' 이민호가 아시아의 얼굴로 등극했다.

9일 이민호의 소속사 스타하우스 측은 "제주항공의 이민호 래핑 비행기가 등장한 이후 대만의 버스, 중국의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까지 이민호로 도배돼 아시아에서의 인기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최근 제주항공은 자사 모델인 이민호의 모습이 담긴 래핑기를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현재 일본과 중국, 필리핀 등을 운항 중인 제주항공은 한류스타 이민호로 꾸며진 여객기 운항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또 이민호 열풍이 불고 있는 대만에서는 '이민호 버스'가 등장했다. 해당 버스는 대형 리무진 버스



차체에 이민호 얼굴이 커다랗게 새겨진 것으로, 이 시내버스 광고는 드라마 '상속자들'의 대만 방송을 맞아 현지 팬클럽 회원들이 힘을 합쳐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지하철역 내부와 승강장, 출입구 등에는 이민호가 모델로 활동하는 오픈마켓 타오바오 광고로 도배돼 있다.

한편 이민호는 이달 중순 영화 '강남 블루스' 촬영에 돌입한다.

/양성운기자 ysw@

'에릭의 연인' 나혜미

12세차… 오래전부터 교제

신화의 에릭(왼쪽 사진)이 띠동갑 연하 배우 나혜미(오른쪽)와 교제 중이다.

연예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에릭과 나혜미는 이별과 재회를 반복하면서 오래전부터 교제를 해왔고 이미 연예계와 신화 팬들 사이에는 교제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 포털 사이트에 에릭을 검색하면 나혜미가 관련 검색어로 나올 정도로 두 사람은 이미 잘 알려진 관계다.

두 사람은 에릭의 집이 있는 성동구 성수동의 쇼핑몰에서 종종 데이트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나혜미는 지난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신화 16주년 콘서트'를 관람하며 애정을 보이기도 했다.

나혜미는 2007년 인기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정일우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여고생 역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지난해 12월 KBS1 일일드라마 '사랑은 노래를 타고'에 박현우(백성현)의 맞선녀로 등장하기도 했다. /김지민기자



'마녀의 연애' 엄정화 "싱글녀 필수품 세가지 술·친구·베개"

'로맨틱 코미디의 여왕' 엄정화(사진)가 싱글녀의 필수품 세 가지로 술, 친구 그리고 끌어안고 잘 수 있는 큰 베개를 꼽았다.

7일 오후 논현동에서 열린 tvN '마녀의 연애' 제작발표회에서 엄정화는 싱글녀의 '잇 아이템'으로 "잘 때 끌어안고 잘 수 있는 큰 베개가 필요하다"고 말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그는 이어 "큰 베개를 다리 사이에 끼고 자면 정말 편하다"며 "물론 술과 친구도 잇 아이템"이라고 재치 있는 답변을 내놨다.

오는 14일 오후 11시 첫 방송되는 '마녀의 연애'로 5년 만에 드라마에 복귀하는 엄정화는 이번 작품에서 특종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열혈 취재정신의 기자 반지연 역을 맡았다.

반지연은 결혼 전날 약혼자가 사라진 뒤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서른아홉 살 '골드 미스' 캐릭터다. 엄정화의 14세 연하 연인 윤동하 역할은 '대세남' 박서준이 맡아 통통 튀는 연상녀·연하남 커플의 좌충우돌 로맨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지민기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film review

/탁진현기자 tak0427@

■방황하는 칼날

성폭행 당한 딸 위한 아버지의 복수 그려



10일 개봉할 영화 '방황하는 칼날'은 보고 나면 마음에 돌 한 덩이를 얹은 것처럼 불편한 소재를 건드린 문제작이다.

일본 미스터리 소설의 거장 히가시노 게이고의 동명의 소설을 영화화한 이 작품은 청소년 집단 성폭행 사건을 피해자 부모의 시선에서 그리면서 사람이 죽어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미성년자 법제도에 관해 칼날 같은 문제 제기를 한다.

영화는 주인공 상현(정재영)의 시선을 따라 순차적으로 움직인다. 여중생인 수진이 동네 목욕탕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고, 아버지 상현은 무력하게 범인이 잡히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다가 익명의 문자 한 통을 받고 어떤 집에 찾아가게 된다.

상현은 그곳에서 소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며 죽어가는 딸의 동영상을 보다 낄낄대는 범인 철용을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살해한다. 순식간에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된 그는 다른 공범의 존재를 알게 되고 형사 억관(이성민)의 추적 속에 나머지 복수를 하기 위해 공범인 두식을 찾아나선다.

'방황하는 칼날'은 딸의 복수를 위해 법 심판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소년을 살해한 상현과 법 집행과 정의 사이에서 고민하며 상현에게 총을 겨눌 수밖에 없는 억관을 교차해 보여주며 끊임없이 관객에게 과연 무엇이 정의인지를 묻는다.

또 자식이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아이가 죽었잖아요"라고 외치며 상현의 처벌을 요구하는 철용의 부모, 범죄를 도왔지만 처벌을 피하기 위해 철용과 두식이 죽기를 바라는 또 다른 소년 민기와 그의 부모, 철용과 두식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자살한 또 다른 소녀의 부모가 터트리는 오열이 교차되며 영화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섞는다.

'방황하는 칼날'이라는 제목은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의 혼란스러운 고민을 담고 있다. 그러나 영화는 법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장난처럼 성폭행을 저지르고 죄의식을 전혀 갖지 않는 소년들의 모습은 법적인 처벌 이전에 부모와 이 사회가 해야 할 역할까지도 고민하게 한다.

두 주연배우인 정재영과 이성민의 연기는 말할 나위도 없다. 정재영은 평범한 가장이 억울하게 딸을 잃고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돼가는 상현의 모습을 마치 진짜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섬세한 연기력으로 표현했다.

또 상현만 있었다면 자칫 아버지의 절절한 복수극으로 흘러갈 수 있는 이 영화에 직업윤리와 인간적인 연민 사이에서 고민하는 억관의 존재와 이를 깊이 있게 연기한 이성민의 연기가 더해져 관객이 법과 정의의 문제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았다.

극본은 물론 연출도 탄탄하다. 상현과 억관의 심리와 추격을 긴박감 있게 엮어내 무거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보는 내내 지루하지 않다. 카메라는 배우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100% 핸드헬드 기법으로 시나리오 순서대로 촬영해 등장인물들의 방황하고 흔들리는 내면을 효과적으로 표현해 몰입도를 더욱 높였다.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8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진행된 내한공연에서 열창하고 있다. 처음 한국 관객과 만난 그는 달콤한 목소리와 환상적인 기타 연주, 수준급 춤실력으로 1만2000여 명의 관객을 사로잡았다. /액세스엔터테인먼트

끈적·섹시… '90분의 마법'

concert review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팝스타 브루노 마스 내한공연

밀짚모자 쓴채 기타들고 열창 관객모두 떼창… 분위기 후끈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목소리·몸짓·리듬이 한국에 착륙했다.

8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진행된 '아우디 라이브 2014 브루노 마스 내한공연'에서 브루노 마스는 '문샤인' '나탈리'로 공연을 시작했다.

브루노 마스는 이날 그를 상징하는 밀짚모자를 쓴 채 기타를 들고 '트레저' '머니' '빌리어네어'를 연달아 열창했고 약 1시간30분 동안 총 17곡을 소화했다.

"코리아 아 유 레디~"라는 물음에 남녀노소 공연을 찾은 관객들은 온몸으로 화답했다. "춤추고 노래하고 놀자"는 그의 말에 입석과 좌석 구분 없이 모두 일어나 라이브를 즐겼다. '음악에 몸을 맡긴다'는 표현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특히 브루노 마스의 끈적이는 춤과 섹시한 목소리를 감상할 수 있었던 '아워 퍼스트 타임' 무대에선 여기저기서 "목소리 진짜 좋다"는 탄성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2011년 발매한 '메리 유'와 브루노 마스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라고 밝힌 '이프 아이 뉴' 무대는 팬들의 합창으로 그의 국내 인기를 실감케 했다.

신나는 리듬과 브루노 마스의 귀여운 발 동작이 인상적인 '런 어웨이'에서는 공연장에 발로 바닥을 치는 소리만 들리기도 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후 '낫싱 온 유' '그레네이드' '저스트 더 웨이 유 아'와 마지막 곡 '고릴라'까지 시간이 흐를수록 브루노 마스의 '꿀성대'는 진가를 발휘했다.

브루노 마스는 2010년 데뷔 앨범 '두왑스 앤드 훌리건스'로 팝신을 평정한 싱어송라이터로 2014 제56회 그래미어워즈에서 팝보컬을 수상했다.

그의 첫 내한공연은 1월 21일 인터파크를 통해 예매를 시작한 후 2시간 만에 전석이 매진될 정도로 일찍이 화제가 됐다.

'밀회' 금지된 사랑 전진… 시청률 후진

JTBC 월화극 '밀회' 속 김희애(사진), 유아인의 금지된 사랑이 급진전했지만 시청률은 오히려 소폭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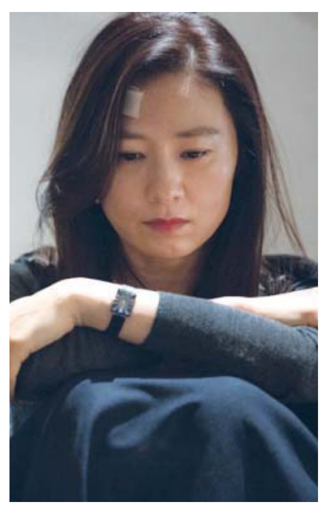
지난 9일 방영된 8회 시청률은 닐슨코리아 수도권 유료 가구(광고 제외) 기준 3.6%를 기록하며 앞선 7회 시청률(4.9%)보다 1.3% 포인트 떨어진 수치를 나타냈다.

이날 방송에선 사회의 따가운 시선에도 서로에 대한 강한 이끌림을 이기지 못한 오혜원(김희애)과 이선재(유아인)의 베드신이 등장했다. 대사와 분위기만으로 처리된 베드신은 자극적인 묘사 없이도 두 사람의 충분한 감정을 표현해 안판석 PD의 연출력이 돋보였다.

열아홉살 나이 차와 불륜이라는 소재를 피아노 선율과 영상미를 통해 '웰메이드 드라마'로 탈바꿈 시키는 안 PD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예상 가능한 지루한 전개가 펼쳐졌고 이는 시청률 하락으로 연결됐다.

선재가 자신의 감정을 처음 드러낸 3회부터 지난 방송에 이르기까지 선재와 혜원의 '밀고 당기기'가 반복되며 다음 장면을 예상 가능하게 해 극의 긴장감을 반감시켰다. 또 주인공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극 초반 시청률 견인차 역할을 했던 심혜진·김혜은 등의 감초 조연들 비중이 축소돼 재미를 떨어뜨렸다.

한편 극 중반에 접어든 '밀회'는 혜원과 선재의 관계를 알아챈 남편 강준형(박혁권)과 선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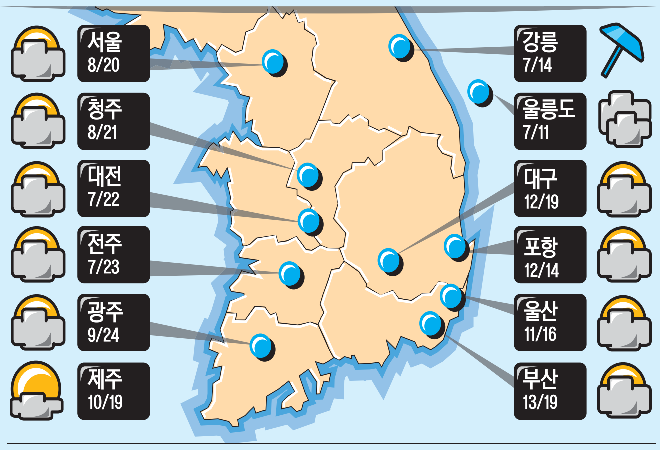
짝사랑하는 강다미(경수진) 등의 감정이 드러나며 네 사람의 사각관계가 본격적으로 그려질 예정이다.

/김지민기자 langkim@

날씨

4/10 木 일출시각 06:05 일몰시각 19:02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봄철 대표적인 나물인 봄동은 아미노산,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등이 풍부해 빈혈과 동맥경화 예방에 좋습니다. 또 식이섬유가 많아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감기 가능 지수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약방의 감초, 주방의 파



윤덕노의 **푸드스토리**



한약에 감초가 빠지지 않는 이유를 동의보감에서는 72종류의 광물성 약재, 1200가지의 식물성 약초와 조화를 이루며 약효를 더해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주방에서 약방의 감초 역할을 하는 것이 파다. 음식마다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양념이기에 별명이 '화사초(和事草)'다. 모든 종류의 음식과 조화를 이루어 좋은 맛을 내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 송나라 때 문헌인 청이록에 보인다.

물론 감초가 모든 약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요리를 할 때 파를 넣지 말아야 하는 음식도 있다. 예컨대 미역국에는 파를 넣지 않는다. 미역과 파는 음식 궁합이 맞지 않아 영양분이 상충하고, 맛 역시 서로를 상쇄시키기 때문이다. 반면 고기에는 파가 어울리는데 특히 봄에는 고기와 함께 파를 먹으라고 했다.

고대 중국의 예법을 적은 예기(禮記)에 나오는 이야기다. 회를 먹을 때 봄에는 파, 가을에는 겨자를 곁들여 먹으라는 것인데 여기서 회는 굳이 생선회가 아니라 주로 육회를 뜻한다. 약간 응용하자면 요즘 고깃집에서 파 무침을 내오는 것은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예법을 따른 것이 아닌가 싶다.

예기에는 또 군자를 맞이해 파와 마늘을 준비할 때는 양쪽 끝을 가지런히 다듬어 놓아야 한다고 했다. 소중한 손님을 맞을 때 파는 빼놓을 수 없는 채소였을 뿐만 아니라 사소한 반찬 하나도 정성껏 깨끗이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요즘 쪽파가 제철이다. 쪽파로 담근 파김치도 맛있고 파절이 한 접시에도 입맛이 살아난다. 옛날 선비는 파를 인생의 청춘에 비유했지만 봄 파는 임금님께 바치는 진상품이었다. 그만큼 생명력이 넘치기 때문이다.

/음식문화평론가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2	6				3
		6		3		8	1	5
	4				5			
1					7	5		
4								1
		5	9					7
			8				7	
2	1	3		7		9		
5				2	9			

				2	6	8		7
3		2					4	6
							1	
	5					1		
	9		3	1	4		5	
		4					8	
	1							
4	7					6		3
8		6	2	5				

스도쿠 정답

7	5	1	2	6	8	4	9	3
9	2	6	7	3	4	8	1	5
3	4	8	1	9	5	7	2	6
1	3	2	6	4	7	5	8	9
4	7	9	5	8	2	6	3	1
8	6	5	9	1	3	2	4	7
6	9	4	8	5	1	3	7	2
2	1	3	4	7	6	9	5	8
5	8	7	3	2	9	1	6	4

5	4	1	9	2	6	8	3	7
3	8	2	5	7	1	9	4	6
9	6	7	4	3	8	2	1	5
7	5	3	8	9	2	1	6	4
6	9	8	3	1	4	7	5	2
1	2	4	7	6	5	3	8	9
2	1	9	6	4	3	5	7	8
4	7	5	1	8	9	6	2	3
8	3	6	2	5	7	4	9	1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리미티드' (마이클 리오스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학원 강사 그만둘까 하는데… 재물운 없어 사직은 신중을

달별사랑 남자 78년 7월 1일 양력 자정쯤

Q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지내고 있는데 학원원장과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일이 많아 쉬고 싶습니다. 학원 강사 말고 제 팔자에 다른 것으로 삶을 이어가면서 원활하게 살 수 있는 대안이 있을까요?

A '물 위에 뜬 나무'와 같아 주거를 자주 옮기거나 부부 연이 바뀌는 등의 굴곡이 따릅니다. 인수(印綬:나를 이끌어줌)가 주가 되어 지적 수준이 높은 편으로 보편적인 기준에서 지혜와 총명을 암시하는 길한 성분이 많습니다. 이런 기운은 중년 이후에도 학구열이 높음을 암시하므로 교육계에서 다져나갈 수 있는데 생일지에 갑목(甲木)은 주변에 힘을 입어 뭔가를 이루려는 강한 기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재물운은 묘절지(墓絶地:묘지로 들어가 단절됨)로 가고 있으므로 다른 일을 한다고 해도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효신(梟神)의 성분 또한 내재되어 있으므로 집 안에 올빼미 시계나 어두운 그림 등은 놓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직·사업구상 생각 중입니다 자신을 되돌아 보고 판단하길

장인 남자 65년 10월 20일 음력 새벽 5시30분

Q 지하철로 출근하며 매일 이 난을 애독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와 맞지 않아 이직 또는 사업을 생각 중이나 나이 때문에 많이 망설여집니다. 혹시 이직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타 분야 자격증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직 또는 사업이 가능하다면 언제쯤이 될까요.

A 명심보감에 보면 공자께서 "사람은 자기 자신의 확고부동한 인생관과 주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중략)… 어떤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싫어할지라도 반드시 그의 말과 행실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 자기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도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도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고 비록 사람들이 싫어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일이면 해야 한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시기에 스스로 망설여지면 자격증 공부로 사고력과 에너지를 집중하세요. 직장 다니며 공부한다는 것이 어려운데 회사와 맞지 않는 원인을 나 자신에게서 찾아보면 좀 더 화합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상담 질문과 관계되는 얘기이니 도움되길 바랍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4월 10일 (음 3월 11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쥐 **48년생** 소용없는 일에 미련 두지 마라. **60년생** 원기 회복할 일이 생긴다. **72년생** 동상이몽 동료 때문에 부글부글~. **84년생** 남쪽에 가면 좋은 사람과 회포를 푼다.

소 **49년생** 지갑이 두둑해 황홀하다. **61년생** 찬란함 뒤에 숨은 상처 잊지 마라. **73년생** 물 흐르듯 대세를 따라야 손해 없다. **85년생** 솔로는 소개팅 있으니 기대하라.

호랑이 **50년생** 남의 일에 끼어들면 피곤~. **62년생** 생각도 못 한 희소식 날아든다. **74년생** 새 일은 개척 정신으로 뛰어들어라. **86년생** 지나치게 친절한 말엔 독이 있다.

토끼 **51년생** 흥미로운 일이 생긴다. **63년생** 구설수 있으니 언행 조심할 것. **75년생** 직장인은 흥분할 경사가 생긴다. **87년생** 딴 나라 이야기하는 연인이 얄밉구나.

용 **52년생** 겉치장에 큰돈 들이지 마라. **64년생**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 살린다. **76년생** 정리할 일은 미련 없이 정리할 것. **88년생** 땀을 흘려라. 혹시나 하는 행운은 없다.

뱀 **53년생** 꼼꼼한 배우자 덕을 본다. **65년생** 계약서 쓸 땐 약관 꼭 살펴라. **77년생** 재기 노리는 사람은 희망이 보인다. **89년생** 반칙이니 양다리는 걸치지 마라.

말 **42년생** 못마땅해도 변화는 받아들여라. **54년생** 감정 싸움에 맞대응하면 잃는 게 많다. **66년생** 동남쪽에 희소식 있으니 기대하라. **78년생** 모임 가면 열변 토할 일이 생긴다.

양 **43년생** 소신대로 하면 손해 없다. **55년생** 주변의 경고에 귀 기울여라. **67년생** 직장인은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는 격이다. **79년생** 나를 표현하는 데 돈 아끼지 마라.

원숭이 **44년생** 사소한 일도 소신 지켜라. **56년생** 준비 없이 일 시작하면 헉헉댄다. **68년생** 어리바리한 배우자 때문에 부글부글~. **80년생** 기다리던 소식은 듣는다.

닭 **45년생** 마음을 열면 만사 열린다. **57년생** 체면 때문에 호기 부리지 마라. **69년생** 욕심부리면 날개 잃은 새가 추락한 꼴 된다. **81년생** 동료와의 마찰 주의하라.

개 **46년생** 공사 구별 분명히 할 것. **58년생** 운기가 열려서 질주한다. **70년생** 오늘 할 일은 미루지 말고 마무리할 것. **82년생** 한밤중 망망대해서 등대를 발견한 격이다.

돼지 **47년생** 생각도 못 한 공돈이 생긴다. **59년생** 뜻밖의 놀라움 주의~. **71년생** 취향에 맞는 일을 맡아 능률이 오른다. **83년생** 한번 결정했으면 앞도 뒤도 돌아보지 마라.

용병 거포전쟁… 토종은 타점전쟁

조쉬 벨·브렛 필 홈런 선두경쟁… 박정권 타점 1위 속 정성훈 등 가세

올 시즌 프로야구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개막전이 열린 모든 구장이 만원을 이뤄 사상 두 번째 700만 관중 시대를 향해 순항하는 분위기다. 그 중심에는 다시 한국을 찾는 용병 거포들의 활약과 토종 거포들의 시원한 플레이가 있다. 마치 예고라도 한 듯 시즌 초반부터 공격 부문에서 치열한 선두 경쟁을 펼치고 있다.





◆ 용병 불붙은 홈런 경쟁

3년 만에 다시 한국프로야구 무대에 등장한 외국인 타자들의 홈런 포가 시즌 초반부터 후끈 달아올랐다. LG 트윈스의 4번 타자 조쉬 벨(왼쪽 사진)은 8일 현재 홈런 부문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다. 국내 토종 거포는 물론 외국인 타자들과의 홈런 경쟁에서도 한 발 앞서있다.

스위치 타자인 조쉬 벨은 지난 1일 SK 와이번스전에서 한국프로야구 통산 다섯 번째로 한 경기 양쪽 타석에서 번갈아가며 홈런을 때리기도 했다.

나성범과 이호준(이상 NC 다이노스)과 함께 KIA 타이거스의 브렛 필은 홈런 부문 공동 2위에 이름을 올리며 치열한 선두 경쟁을 펼치고 있다. 올 시즌 홈런 3개를 때려낸 필은 팀 내 홈런 부문 단독 1위를 달리고 있다. KIA 타선에서 필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홈런포를 쏘아올린 선수는 이범호(1개)와 차일목(1개)뿐이다.

이어 삼성 라이온즈의 야마이코 나바로와 두산 베어스의 호르헤 칸투, SK 루크 스캇이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칸투는 메이저리그에서도 100홈런 이상을 때린 거포로 개막 후 4경기에서 홈런 2개를 치며 명성에 걸맞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나바로의 메이저리그 경력은 보잘것없지만 한국 무대에 빠르게 적응해가고 있다.

외국인 타자들의 방망이가 살아나면서 올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토종 베테랑 타점 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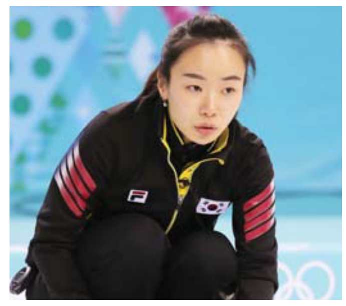
국내 거포들은 홈런 경쟁은 물론 해결사로 거듭나며 팀 승리에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가을 사나이' 박정권(오른쪽)은 올 시즌 SK가 치른 8경기에 모두 출전해 타율 0.355, 2홈런 10타점 9득점을 기록하고 있다. 타점 부문에서는 단독 1위에 올라있고 득점 부문에서는 넥센 히어로즈의 박병호와 팀 동료 김강민에 이어 3위를 달리고 있다. 8일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SK의 승리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LG의 베테랑 내야수 정성훈은 3번 타자로 팀 타선을 이끌고 있다. 현재 정성훈은 타율 0.417, 2홈런 8타점 7득점을 기록하고 있다. '적토마' 이병규와 '빅뱅' 이병규, 박용택, 이진영 등 좌타 라인으로 대표되는 LG의 타선에 오른손 타자 정성훈의 활약은 더욱 돋보일 수밖에 없다.

이외에도 넥센의 유한준은 타율 0.346, 2홈런 8타점 4득점을, NC 4번 타자 이호준은 타율 0.320, 3홈런 8타점 4득점을 기록하고 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컬링 주장 김지선 임신 판명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 포기

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컬링팀 주장 김지선(사진)의 임신으로 경기도청팀이 오는 11일부터 6일 동안 전주에서 열리는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를 포기했다.

8일 경기도 체육회는 "김지선의 임신으로 선수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이 어렵게 됐다. 이 때문에 대한컬링경기연맹에 선발전 출전 포기 의사를 7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지선의 임신 소식에 경기도청과 동료들은 축하하면서도 당황했다. (코치 성추행 등) 사건을 겪은 선수들이 복귀해 새 출발을 다짐하는 상황에서 핵심 선수가 빠지면서 엔트리 구성은 어려워졌다.

동료 이슬비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 시즌 마지막 대회, 잘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이라는 글을 남기며 선발전 출전 의지를 보였다.

/전효진기자 jeonhj89@

두들겨 맞은 윤석민

마이너리그 데뷔전서 2⅓이닝 9실점



볼티모어 오리올스 윤석민(28·사진)이 마이너리그 첫 등판서 최악의 투구를 했다.

미국프로야구 볼티모어 오리올스 산하 트리플A 노포크 타이즈에서 개막을 맞은 윤석민은 9일 버지니아주 노포크의 하버파크에서 열린 그윈넷 브레이브스(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산하)전에 선발 등판했으나 2⅓이닝 동안 홈런 1방을 포함해 11안타를 맞고 9실점하고 조기강판했다.

투구 수는 57개였고 스트라이크는 39개였다. 스트라이크 비율은 높았지만 제구가 좋지 않았다. 윤석민은 결국 3회를 채우지 못하고 마운드에서 내려왔다.

윤석민으로선 매우 좋지 않은 출발이다. 계약 자체가 늦었고, 비자 발급으로 시범경기서 벅 쇼월터 감독에게 어필할 기회도 많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마이너리그 첫 등판이 우천 취소로 이틀이나 연기되면서 윤석민으로선 좋은 컨디션을 완벽하게 잃은 듯했다. 윤석민이 이날 등판으로 마이너리그 벤치의 믿음도 얻지 못해 당분간 메이저리그 승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성운기자

첼시·레알 마드리드 4강

FC 첼시(잉글랜드)가 파리 생제르맹(프랑스)을 누르고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4강에 진출했다.

첼시는 9일 영국 런던의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열린 파리 생제르맹과의 2013~2014시즌 8강 2차전에서 2-0으로 승리했다. 원정 1차전에서 1-3으로 패했던 첼시는 생제르맹과 합계 3-3으로 동점을 이뤘으나 원정 다득점 원칙에 따라 4강 출전권을 따냈다.

레알 마드리드(스페인)는 이날 독일 도르트문트의 지그날 이두나 파크에서 열린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독일)와의 8강 2차전에서 0-2로 패했다. 그러나 홈 1차전에서 3-0 승리를 거둔 레알 마드리드는 합계 전적 3-2로 4강 티켓을 손에 넣었다.

/유순호기자 suno@



"공중볼 내거야" 9일 영국 런던 스탐퍼드 브리지에서 열린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서 첼시 FC의 뎀바 바(오른쪽)와 파리 생제르맹의 알렉스 코스타가 치열하게 공중 볼을 다투고 있다. /AFP 연합뉴스

프로야구 전적 9일

■잠실

S K	211	001	000	5
두산	010	011	100	4

△ 승리투수 = 채병용(2승) △ 세이브투수 = 박희수(4세이브) △ 패전투수 = 니퍼트(1승 2패) △ 홈런 = 스캇 3·4호(1회2점·6회1점, 이상 SK) 칸투 3호(2회1점) 양의지 3호(5회1점·이상 두산)

■목동

KIA	011	101	300	7
넥센	501	002	02X	10

△ 승리투수 = 문성현(1승) △ 세이브투수 = 손승락(2패 3세이브) △ 패전투수 = 박경태(2패) △ 홈런= 이택근 3·4호(1회 2점, 6회 1점) 강정호 1호(1회 2점) 김민성 2호(8회 2점, 이상 넥센)

■사직

L G	000	400	012	7
롯데	100	201	000	4

△ 승리투수 = 정현욱(1승) △ 세이브투수 = 봉중근(1세이브) △ 패전투수 = 이명우(1패) △ 홈런 = 이병규 1호(4회4점·LG) 손아섭 1호(1회1점) 강민호 3호(4회2점·이상 롯데)

■마산

한화	100	000	001	2
N C	000	123	00X	6

△ 승리투수 = 웨버(2승) △ 패전투수 = 앨버스(1승 1패) △ 홈런 = 테임즈 2호(4회1점·NC)

프로축구 전적 9일

상주	2	1	서울

△ 득점= 하태균①(전29분) 이근호①(후33분·이상 상주) 에스쿠데로①(후14분·서울)

제주	2	0	전북

△ 득점= 윤빛가람①(후8분) 김현①(후27분·이상 제주)

포항	3	0	경남

△ 득점= 강수일①(전37분) 김승대③④(후8분·후33분·이상 포항)

인천	0	0	부산

울산	0	1	성남

△ 득점 = 김철호②(후9분·성남)

수원	1	0	전남

△ 득점 = 염기훈②(후25분·PK·수원)



미래형 복합업무단지
엠스테이트

역세권의 가치에 광장의 예술을 더하다! **M7 상가분양**

문의전화 **02)3432-3959**

시행 KAIT 한국자산신탁 | 위탁 MS NEWV (주)엠에스뉴브 | 시공 현대건설



제2롯데월드(예정) |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예정) | 문정 법조·미래형 업무단지(예정) KTX수서역사(예정) | 가든 5 활성화단지 | 장지지구 | 위례신도시 | 동남권 유통단지 등의 개발호재

1. 분양신고번호 및 분양신고일 : 지식산업센터 [송파구청 경제진흥과 – 69087호(2013. 12. 24) 업무시설, 근린상업시설 [1차: 2013–건축과–분양신고–5, 2013.12.23, 2차: 2013–건축과–분양신고–6, 2013.12.27] 2. 분양대금의 관리자와 분양사업자 간의 관계 – 분양사업자(분양대금관리) : 한국자산신탁(주) 3.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 : 한국자산신탁(주) 4. 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 준공 및 입주 예정일 : 2016년 10월 예정 5. 등록사업자의 상호·명칭 : 한국자산신탁(주) 6. 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 070012 7.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역삼동, 카이트타워) 8. 시공업체의 명칭, 공급을 대행하는 경우 대행사의 명칭 – 시공 : 현대건설(주) / 분양대행 : (주)해냄개발 "기타 사항은 견본주택에 게시한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홍보물에 표현된 컬쳐밸리와 광장은 SH공사 주관사업으로 SH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 및 내용 문구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 또는 표기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